

이천의 이야기

- 마장면 설화자료집 -



'이천문화'는 이천 지역의 문화를 말한다. 하지만 '이천'이라는 지역에서 행해지는 창작, 예술 활동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천문화가 되는 것은 아니다. 활발한 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활동이 다른 지역에서도 별 문제의식 없이 행해지는 범용적 문화 활동이라면 그것이 이천의 문화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단순히 '이천'이라는 지리적 공간 영역에 의해서 모아두었다고 해서 이천문화가 되는 것도 아니다. 이천에 속하는 여러 지역문화를 총체적으로 가리켜 이천문화라 성을 가진 이천의 땅을 정의하고 그 꿈을 수 있는 기준이 있다. 첫째, '이천'은 문화다. 지역성에 기반한다고 하는 이들이 주체적으로 문화를 바라보고 참여하며 행하는 활동으로, 이천 주민의 현재와 미래적 삶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문화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때 이천이라는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역사 속으로 전승하는 것이야말로 이천주민들에게 이천의 정체성을 가지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둘째, '이천문화'는 다른 지역문화와 유 '이천문화'는 한 여러 읍·면 지 경기도문화와, 내 유거적으로 관 어야 한다. 이천



국문화, 민족문화, 그리고 역문화의 상위개념이기도 부적으로는 이천에 속해 있는 여러 읍·면지역의 문화와, 그리고 이천과 인접해있는 인근지역의 문화와 계를 맺으며 형성되어온 문화로 이해해야 한다. 셋째, '이천문화'는 역사적 과정과 맥락 속에서 이해되는 문화적 정체성은 사회·역사적으로뿐만 아니라 지리·환경적으로도 끊임없이 유동적으로 변화해 왔다. 역사적으로 보면 삼국시대에는 한강유역이 삼국의 각축장이 되어 백제, 고구려, 신라 등으로 갈래가 바뀌었고, 고려와 조선, 근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란으로 인한 영향과 행정구역의 변천에 따른 편입과 분리가 있어왔다. 그리고 음죽군의 경우 오랫동안 서로 다른 행정단위로 관할되어온 경험으로 인해 다양한 지역문화가 함께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이천문화는 여러 상이한 지역문화들이 서로 충돌하고 만나면서 형성되어온 역사적 과정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서 얻어진 공동의 경험을 공유 게 하며 그 경험을 이천문화의 진정한 문화적 자산 기적인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경기도문화의 하위개념이면서 이천에 속해 있는 하다. 다시 말해서 이천문화는 위로는 한국문화, 시 얻어진 공동의 경험을 공유 게 하며 그 경험을 이천문화의 진정한 문화적 자산 기적인 관계 속에서 파악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경기도문화의 하위개념이면서 이천에 속해 있는 하다. 다시 말해서 이천문화는 위로는 한국문화,



4권. 마장면 설화자료집

< 목 차 >

(1) 오천리

- 1-1) 오천2리 은행나무에 얽힌 이야기 / 4
- 1-2) 도드람산 전설 / 4
- 1-3) 빈대절터 / 5
- 1-4) 오천2리의 형국-조래미터 이야기 / 5
- 1-5) 오천2리의 애장터 이야기 / 6

(2) 양촌리

- 2-1) 도깨비터 전설 / 6

(3) 관리

- 3-1) 말바위 전설 / 7
- 3-2) 조개탕에 얽힌 이야기 / 7
- 3-3) 가문을 해결해준 산신령과 도깨비 이야기 / 8
- 3-4) 덜컹바위 전설 / 8
- 3-5) 신둔면 고척동과 마장면 관리의 지명 유래 / 9
- 3-6) 율정선생의 묘역에 얽힌 이야기 / 10
- 3-7) 양각산 말바위 / 10
- 3-8) 율정터 전설 / 10
- 3-9) 산신제당 전설 / 11
- 3-10) 빈대절터 전설 / 11
- 3-11) 여기수(외기수) 이야기 / 12

(4) 억만리

- 4-1) 양자 아들이 효행하여 복받은 이야기 / 131
- 4-2) 효행을 다하여 복 받은 양아들 / 14
- 4-3) 매부종고 누이종고의 유래 / 16
- 4-4) 신주(神主) 개 물어 간다의 유래 / 17
- 4-5) 혼인할 때 가문을 중시하게 된 이야기 / 18
- 4-6) 자식의 간을 빼 먹은 문둥병 걸린 아버지의 이야기 / 19

- 4-7)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는 이야기 / 20
- 4-8) 억만리의 유래 / 22
- 4-9) 옛날에 글방이 있던 시절 이야기 / 22
- 4-10) 하루에 팔천장 볼 수 있느냐? 이야기 / 24
- 4-11) 횃다리 유래 / 24

(5) 목리

- 5-1) 팔죽바위 / 25
- 5-2) 저명산의 유래 / 25

(6) 표교리

- 6-1) 도드람산의 유래 / 26
- 6-2) 영보사의 유래 / 27
- 6-3) 빈대가 많아 절에 불을 지른 이야기 / 27

(7) 이치리

- 7-1) 안배터 우물에 얽힌 이야기 / 28
- 7-2) 공동묘지 전설 / 29

(8) 각평리

- 8-1) 옥수암의 유래 / 29
- 8-2) 林中石 전설 / 30
- 8-3) 문부쟁이 전설 / 31

(9) 덕평리

- 9-1) 임방동산 전설 / 32
- 9-2) 마심이 고개에 얽힌 전설 / 33
- 9-3) 박수문장에 얽힌 전설 / 33
- 9-4) 덕뜰(덕평1리)에 얽힌 전설 / 33
- 9-5) 공동묘지 전설 / 34
- 9-6) 도깨비 전설 / 34

9-7) 한봉 전설 / 35

9-8) 웃물 전설 / 35

(10) 이평리

10-1) 여우박골 전설 / 36

10-2) 옥수암 유래(목탁봉 전설) / 36

10-3) 쪽도리바위 / 37

10-4) 미륵불입상에 얽힌 이야기 / 37

10-5) 삼승이 지명 전설/ 37

(11) 해월리

11-1) 구선복이 축조하려던 저수지와 균용대 이야기 / 38

11-2) 게너미(기너미) 지명에 얽힌 이야기 / 39

11-3) 달래고개 전설 / 40

(12) 작촌리

12-1) 작별이의 지명 유래 / 41

12-2) 나라모르기의 지명 유래 / 41

12-3) 말발작 바위에 얽힌 이야기 / 41

12-4) 광주이씨의 효행담 / 42

12-5) 효양산 금송아지 이야기 / 42

(13) 문헌소재 마장면 전설

13-1) 효자의 목숨을 구한 산돼지 - 도드람산의 유래 / 43

13-2) 도드람산과 근처 지세에 대한 이야기 / 45

13-3) 양각산 마대와 이사성 / 47

(1) 오천리

[오천2리]

* 1998.3.27. 18:30-20:30. 오천2리 경로회관에서, 홍순석 . 박정호조사 , 홍순석 정리.

제보자: 최상만(45세, 남). 장봉환(60세, 남)

* 이 자료는 오천2리 경로회관에서 마을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자, 오천2리에는 은행나무가 제일 중요하다고 하면서 들려주신 이야기이다. 실제 체험한 이야기라고 강조하면서 채록에 적극적으로 응해주셨다.

1-1) 오천2리 은행나무에 얽힌 이야기

마장면 오천2리 놀이터 옆에는 수령이 5백년이나 되는 고목이 우뚝 솟아 있었다. 옛날부터 마을의 동제를 지내며 숭앙해온 나무이다. 아무도 이 나무를 해칠 수 없다. 간혹 나뭇가지를 함부로 잘라내도 재앙이 미친다고 전한다. 그런데 이 나무는 나라에 재난이 있을 때면 이상한 소리를 내어 미리 알려준다고 한다. 6.25사변 때도 그랬다. 바람에 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일부러 무엇인가를 말해주려는 그런 소리라 한다. 언젠가는 이 은행나무에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몸을 칭칭 감고 올라가다가 하늘을 향해 큰 소리를 내더니, 다시 내려와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한다. 지금도 동네나 집안에 재앙이 있으면 제수를 마련해서 이 나무에 빈다. (사진 3:43)

1-2) 도드람산 전설

버섯을 키우던 산에서 사는 사람이 산을 타다가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위기를 맞이했는데 돼지가 산꼭대기에서 이를 보고 울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사람이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하며 일명 '돼지가 우는 산'이라고 해서 돌울음산이라고 한다. (사진 3: 1)

1-3) 빈대절터

양각산은 옛날에는 양악산이라 불렀다. 이 산은 매우 신성한 산이라서 위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산신제를 매년 지내다가 요즈음은 한 해 걸러서 지내는데, 산신제를 지내면 복을 받는다고 한다. 이 산에는 내원사를 비롯해서 절터가 많은데, 지금은 내원사만 있다. 지금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절터가 있는데, 모두들 빈대절터라고 한다.

이 절은 부처님의 영험도 소문나 있었고 이에 따라 신도도 많았다. 그럼에도 이 절에는 스님들이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였다. 터가 세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신앙심이 부족한 탓도 아니었다. 단지 이 절에 빈대가 많아서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절 안에서는 살생할 수가 없어서 빈대가 많아도 그대로 둘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보니 빈대는 날이 갈수록 늘고, 스님들은 참아 내려고 안간힘을 써도 그럴 수가 없었다. 절을 찾아오는 신도들도 빈대가 겁이 나서 발길이 점점 끊어졌다. 결국은 신도들이 전부 이 절을 떠나게 되었다. 이렇게 되자 절의 형편은 점점 기울고, 스님들도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부처님을 모시고 절을 떠나게 되었다. 빈 절에 더욱 빈대가 번성하자 마을사람들은 절에 불을 질렀다. 빈대를 잡기 위해서 절을 전부 태운 셈이다. 흔히 전하는 말에 “빈대 잡자고 절간을 모두 불태웠다”고 하는데, 바로 이 같은 사례를 두고 한 말이다. 지금도 내원사 입구 쪽에는 이 절터가 남아 있으며, 풍수지리학에 의하면 묘 터로도 매우 좋은 자리라고 한다.

1-4) 오천2리의 형국-조래미터 이야기

마장면의 면소재지인 오천2리는 본래 오천리 터이다. 지금 1. 2. 3리로 갈라져 있지만 옛날에 오천리라 하면 지금의 2리를 말한다. 오천장도 여기서 썼다. 오천 우시장은 아주 유명하였다. 닻새마다 지금도 장이 설 정도로 번화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오천2리에 사는 사람들은 돈을 모아도 오랫동안 갖고 있지 못하다는 징크스가 있다. 실제로 그런데, 그것은 오천2리의 지형이 조래미터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조래미는 쌀을 일 때 쓰는 것인데, 조래미질을 오랫동안 하다보면 안에 있던 쌀까지 다 새고 만다. 반면 쉽게 쌀을 일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지 오천리 사람은 돈을 쉽게 번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탕진하고 만다. 아직도 큰

부자가 없는 것은 그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돈을 벌면 빨리 오천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잘되었다.

1-5> 오천2리의 애장터 이야기

오천2리에는 애장터가 있다. 바로 굿집이 있는 곳인데, 옛날에 여기에다 어린아이들의 시체를 묻었다고 한다. 한 때는 문둥이가 동리에서 아이들을 훔쳐다 죽여서 간을 꺼내 먹고 묻은 것이라는 말도 있다. 어린아이의 간이 문둥병 치료에 영약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마장초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에 갔다 오는 길에 이 곳을 지나다니지 않고, 무서워서 뺑 돌아 다녔다고 한다.

(2) 양촌리

[양촌리]

* 1998.3.27. 20 :30-22: 30. 손정례씨택에서, 홍순석 · 박정호 조사. 홍순석 정리.

제보자 김인철(52세, 남)

* 양촌리 부녀회장택을 찾아가 민속자료를 조사한 뒤, 함께 자리한 남편 김인철씨로부터 지명과 전설 몇 편을 채록할 수 있었다. 밤 늦은 시간이라서 오랫동안 조사할 수 없었으나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셨다.

2-1) 도깨비터 전설

양촌리 45번지는 옛날부터 터가 세다고 소문이 났다. 대가 약한 사람은 그 집에서 오랫동안 살 수가 없었으며, 그 터에서 삼년간 살아내면 부자가 된 사례도 있다. 가끔 밤에 도깨비가 나타나 장난을 치기도 한다. 동산 밑에 도깨비는 가정집에 들어가 솔뚜껑을 뒤집어 놓았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집 주인이 그 솔뚜껑을 간신히 바로 놓았다고 한다. 만일 대가 약한 사람이 그 솔뚜껑을 바로 놓지 못하면 자손이 대가 끊긴다고 한다.

(3) 관리

[관1리]

* 1998.3.28. 13:00-18:00. 관1리 김영현씨택에서, 임태한·강용모조사, 임태완정리.

제보자: 김영현(44세, 남)

* 관1리 이장님을 찾아뵙고 마을유래와 민속을 조사한 다음, 관련된 전설을 제보해 달라고

부탁드리자 들려준 이야기이다.

3-1) 말바위 전설

관1리 마을에 말처럼 생긴 바위가 하나 있는 흔히들 말바위라고 부른다. 지금은 집터로 땅에 묻혔다. 왜정 때 일본 순사가 이 동리에 와서 말바위를 보고는 칼을 빼서 목부분을 내리쳤는데, 놀랍게도 피가 났다고 한다. 이를 본 일본 순사는 겁이 나서 도망치고 다시는 이 마을에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관2리]

* 1998.3.28. 19:30-22:00. 관2리 이장님택에서, 강용모·임태완 조사, 임태란 정리

제보자:한용택(72세, 남), 심종오(65세, 남), 원봉재(52세, 남), 이주문(78세, 남)

*관2리 이장님을 찾아 뵙고 구연자를 추천해달고 부탁드렸더니, 노인분들을 마을회관에 나오시게 하였다. 마을회관에서 간단히 약주를 대접한 다음, 민요와 전설, 마을유래 등 조사하였다. 분위기가 다소 산만하여 채록하기 어려웠다.

3-2) 조개탕에 얽힌 이야기

관2리 양각산 산기슭에는 작은 물탕이 있는데 동리주민들은 조개탕이라고 한다. 작은 조개가 물바닥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름 붙인 것이다. 아주 오랜 옛날에는 관리 전체가 바다였다고 한다. 그 때 있었던 조개가 이어져 내려왔으며, 산 속의 물탕에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개탕에는 가끔 이변이 생긴다. 나라가 어지러우면 작은 조개가 갑자기 커져서 마을로 기어 내려온다는 것이다. 동리 주민들은 이를 보면 모두들 두려워하였다고 전한다. 지금도 물탕은 그대로 있다.

3-3) 가뭄을 해결해준 산신령과 도깨비 이야기

관리 마을에서는 한 해 걸러서 양각산 산신제를 지낸다. 양각산을 끼고 형성된 마을이기에 예로부터 산신령을 위했던 것이다. 그 음덕을 받아서인지 때때로 마을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산신령이나 도깨비가 나타나 도움을 주곤 하였다. 한 번은 가뭄이 들어 모심기가 어려웠다. 못논에 물을 댈 수가 없자 땅을 깊이 파고 물을 퍼서 부었다. 그러자니 여간 고생이 아니었다. 그런데 하루는 아침에 나와 보니 이미 논에 물이 차 있었다. 마을사람이 고생하고 있으니까 도깨비가 미리 대신 퍼준 것이다. 이런 일이 가끔 있었다.

또한, 가뭄에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호랑이가 나타나서 꼬리에 물을 적서 마을 주변에 뿌렸다. 그러자 가뭄이 그쳤다고 한다. 이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산신제를 더욱 정성스럽게 지낸다.

3-4) 덜컹바위 전설

관리는 이천에서 양각산 기슭에 위치한 마을인데, 명당자리가 많았다. 그 가운데는 장수가 태어날 장군터도 있었다. 과연 훗날에 이 터에서 태어난 장수가 있었다. 그 장수는 어려서부터 힘이 솟구쳐 감당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뒷산에 올라가 큰바위를 흔들곤 하였다. 장수가 그 바위를 흔들어버린 뒤부터 덜컹바위라고 불려왔다. 예부터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이 산에 금송아지가 있었는데, 그 송아지를 찾으려면 이천다리를 건너서 억만고개를 넘어서 오천다리를 건너서 한없는 고개를 넘어서 덜컹바위를 지나야 금송아지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

[관3리]

* 1998.3.28. 19:30-22:00, 관3리 이현의씨택에서, 홍순석 · 박정호 조사, 홍순석 정리.

제보자 이현의(78세, 남)

* 제보자 이현의씨는 율정 이관의 선생의 후손으로, 문화유적조사단이 율정 선생의 유적을 조사하러 왔다고 하자, 적극적으로 율정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셨다.

3-5) 신둔면 고척동과 마장면 관리의 지명유래

신둔면의 고척동과 마장면의 관리는 이승경(李崇慶)이 양각산 아래에 은거하면서 형성된 지명이다. 이경상은 본관이 전의(全義), 호는 풍택(楓澤), 또는 단구(丹邱)로 조선 정종의 아들인 덕천군(德泉君)의 사위이며, 이조참판으로 연산군 때 화를 당한 이창신(李昌 臣)의 손자이다. 일찍이 진사가 되었으나, 할아버지와 큰아버지가 노수손(盧水孫)의 무고로 화를 당하자 벼슬에 뜻을 버리고 신둔면 고척리 양악산 아래에 내려와 살았다. 집 앞에 연못을 파고 연못 가운데 단풍나무를 심어 스스로 풍택(楓澤)이라 호(號)를 정하니 모든 사람들이 이 동리를 풍택이라 불렀다. 그는 학문과 경륜이 높아, 고관들이 여주에 있는 영릉을 참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그를 만나보고 많은 자문을 받아 갔다.

그가 이천에 머물면서 이천 고을에 일고척(一高尺) 이관동(二冠洞)이란 술어가 생겨났다. 이관동(二冠洞)은 마장면 관리(冠里)의 옛 이름이다. 이는 양각산 서편 관동(冠洞)에 이천 고을에서 두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율정(栗亭) 이관의(李寬義) 선생이 살았기 때문이다.

3-6) 율정 선생의 묘역에 얽힌 이야기

율정 이관의 선생의 묘소는 관3리 설가들 위쪽 산기슭에 있다. 설가들은 본래 설씨네가 소유한 들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명칭이다. 이 동리는 원래 설씨들의 집성촌이었다. 그런데 점차 줄어들어 지금은 설씨가 거의 없다. 대신 광주이씨(廣州李氏)가 뒤를 번창하였는데, 이같이 된 데는 풍수지리의 영향

때문이라고 한다. 이관의 선생의 묘역은 동쪽에 자리하고 서쪽을 향하고 있는데, 친손보다는 외손이 번창하는 형국이라고 한다. 그 때문인지 설씨네에 장가든 사람이 번창하여 집성촌을 이루다가 다시 그 문중에 장가든 이관의 선생이 가문을 일으키자 광주이씨들이 촌락을 이루었고, 이어 광주이씨 문중에 장가든 윤씨들이 번창하여 지금은 관3리에 윤씨들이 오히려 더 많다고 한다. (사진 2:24)

3-7) 양각산 말바위

마장면 관리 장재울에 말바위가 있다. 옛날 이 동네에 욕심 많은 부자가 살았는데, 매일처럼 많은 식객들이 찾아오자 그 부자는 어떻게 하면 식객들이 찾아오지 못하도록 할까 하는 궁리에 골몰했다. 하루는 어떤 시주승이 지나가다가 일러주는 말이, 고개 위에 서있는 말바위의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으면 된다고 했다. 부자는 많은 인부들을 동원하여 말바위의 방향을 억지로 바꿔놓았는데, 그 후 가세가 점점 기울더니 마침내 망해버렸다고 한다. 집안이 망해버리게 되니 자연 식객들도 끊어지게 되었다.

[관3리]

* 1998.3.28. 13:00-18:00. 관3리 윤석홍씨택에서, 홍순석 · 박정호 조사, 홍순석 정리. 제보자: 윤석홍(66세, 남)

* 제보자 윤석홍씨는 대대로 이 마을에 살아온 분으로, 관리의 미풍양속을 지키기 위해 남달리 노력하고 있다. 양각산 산신제의 일을 맡고 있으므로, 민속조사를 마친 다음 정중하게 전설 자료를 채록하겠다고 요청하니 알고 계신 이야기나 해주겠다고 하면서 구연하셨다.

3-8) 울정터 전설

관리는 조선조 때 울정 이관의 선생이 우거하면서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를 기르던 곳이다. 마을 이름도 그로부터 연유하였다. 이관의 선생은 마을에 울정(栗亭)을 지어놓고 소일하면서, 자신의 호(號)도 울정이라 하였다. 울정은 마을 가운데 있었는데, 지금은 터만 남아 있을 뿐이다. 그리고 울정 선생이

직접 심으셨다는 느티나무 세 개가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모두 남아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를 후손이 팔아서 처분하였다. 그로 인해 나무를 팔아먹은 후손은 재앙을 얻어 큰 병이 나서 죽었다고 한다. 지금은 나무 두 그루만 있다.

3-9) 산신제당 전설

관리 양각산의 산신제는 이천에서 유명하다. 격년제로 매우 엄숙하고 진지하게 이루어진다. 양각산 기슭에 산신제당이 있어 제사를 지내는 제관들은 미리 올라가 그곳에서 시간을 기다린다. 제사를 마칠 때까지는 입을 다물고 거의 말을 하지 않는다. 산신제에 관한 말 외에는 전혀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때로는 제사를 지내다가 실언·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본인이 반드시 해를 입는다고 하며, 산제당 근처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운다고 한다. 따라서 마을에서 기다리는 주민들도 그 같은 조짐이 있으면, 불안해한다. 그런 일이 몇 번 있을 뒤편부터는 절대로 엄숙하고 정결하게 지낸다고 한다. (사진 4: 16)

3-10) 빈대절터 전설

관리 양각산 기슭에 내원사(內院寺)라는 절이 있다. 이 절을 찾아가다가 보면 삼층탑이 있는 곳에 못 미쳐서 오른쪽으로 골짜기가 있다. 이 골짜기로 들어가면 절터가 나온다. 한 눈에 절이 있었던 터였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옛날에는 이 절이 번창했다. 그런데 이 절의 스님이 오랜 동안 다른 절에 가서 머물다가 돌아와 보니, 온통 빈대 투성이었다. 살생이 금해진 곳이라 빈대를 때려잡을 수도 없고, 불을 질러 태워 없앨 수도 없고 해서 궁리 끝에 이 절을 버리고 다른 절로 가버렸다. 스님이 없는 절이고 보니 자연 세월이 지나면서 퇴락해지고, 그러다가 완전히 무너져서 지금은 자취만 남아 있을 뿐인 것이다. 빈대 때문에 망한 절이 있었던 터라고 해서 빈대절터라 한다.

[관3리]

* 1998.3.28. 19:30-22:00 권3리 이현의씨택에서, 홍순석 . 박정호조사, 홍순석 정리.

제보자: 이현의(78세, 남)

3:11) 여기수(외기수) 이야기

* 이 자료는 본 조사단이 96년도에 백사면 조사 시 채록된 것과 유사하다. 참고로 여기수는 「女妓水」 또는 「女溪水」로 표기한다.

백사면 원적산과 광주군 도척 사이의 계곡에 여기수라는 폭포가 있다. 지금은 메꾸어졌지만 옛날에는 그 깊이를 측정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연못이었다고 한다. 옛날부터 이 연못에 대한 전설이 있다.

고려 공민왕 때 홍건적이 압록강을 건너와 침공하였다. 홍건적의 대군이 궁궐에까지 임박하여 오자 공민왕은 서둘러 남쪽으로 피신하였다. 이천으로 피신하였다가, 다시 지금의 안동으로 피신하였다가 회복하였다. 이천에는 공민왕 관련 이야기가 많다. 원적산 꼭대기에는 바로 공민봉이 있다. 백사면에 있는 휴궁교는 공민왕이 쉬었다 간 곳이다.

공민왕 일행이 이천에 이르던 날 개경이 함락되었다. 홍건적은 궁궐을 불태워 버리고 부녀자들을 겁탈하였다. 원적산에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자, 왕을 따라오며 모시던 궁녀들은 통곡을 하며 홍건적에게 붙잡혀 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목숨을 끊고자 결심하였다. 그래서 치마로 얼굴을 가린 채 깊은 계곡 아래로 몸을 던졌다. 궁녀들이 몸을 던진 이 못을 가리켜 후세 사람들이 여기수라 부르게 된 것이다. 이것이 잘못 전해져 외기수라고 하는 이도 있다.

(4) 억만리

[억만리]

* 1998.4.10. 20:00-22:00, 억만리 신한근씨택에서, 홍순석. 김희윤. 김희진.. 이창미 조사, 한윤경 정리 제보자: 배수금(68세, 여)

* 회억리 조사를 위해 이장님택을 방문하였다가 이장님은 외출중이셨고 사모

님이 대신 신한근씨 댁을 소개해주셔서 그곳에 모여 계시던 아주머니들로부터 많은 전설과 지명유래를 듣게 되었다. 제보자 배수금씨는 오천교회 권사인데, 이 동리의 이야기꾼으로 소문나 있었다. 명성대로 구연 능력이 뛰어나고, 전혀 막히거나 쉬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씀해 주셨다.

<1:1> 양자 아들이 효행하여 복 받은 이야기

옛날에 노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세 자매를 두고 있었는데 아들 없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려 양자를 들여 장성시켰다. 그런데 세 딸이 모두 출가를 하고 아들까지 장성했을 쯤 마나님이 돌아가신 것이다. 영감님은 갑작스런 아내의 죽음으로 당황해 하고 있었다. 그러다 영감님은 생각했다. '아무래도 얻어다 키운 자식보다는 내 속으로 난 자식이 낫겠지'하고 말이다. 그렇게 생각을 정리하자마자 영감님은 양자를 집에서 내보내 버렸다. 그리고는 세 딸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주었다. 자신의 재산을 나누어 준 후에 이 딸의 집 저 딸의 집을 돌아다니며 죽을 날까지 편히 살자는 생각에서였다. 영감님은 곧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다. 첫 번째로 간 곳은 큰딸의 집이었다. 큰딸의 집에 머물러서 아무 걱정없이 보름이라는 시간을 보냈을 쯤 하루는 큰딸이 말하기를 "아버지 둘째네 집에 다녀오신지도 꽤 오래되셨으니 거기나 한번 다녀오시지요."했다. 영감님은 그런 것도 같아서 "그러마."하고 둘째딸 집으로 향했다. 둘째딸 집에 도착하여 또 보름 쯤 지내려니까 둘째딸이 "아버지 막내네집에 가 보신지도 오래니 거기나 한번 다녀오시지요."했다. 또 영감님은 "그래라"하고 셋째네 집에 가서 보름 쯤 있자니 막내딸이 "아버지 큰언니집에 가 보신지도 오래니 거기나 한번 다녀오시지요."했다. 그러고는 계속해서 딸들이 아버지를 이리저리 떠넘기며 내돌렸다. 그래서 영감님은 생각했다. "이거 내가 괜히 양자를 내보냈구나. 딸년들은 다 소용없었던 것인데... 내가 재산까지 똑같이 나누어 주었건만 나를 이렇게 귀찮아 이리저리 떠넘기기만 하다니." 하고는 개나리뭇짐을 싸고 지떡을 몇 개 삶아 젊어지고 문전 문전을 다니면서 동냥하듯 얻어먹었다.

그러다 추운 겨울이 다가와 동짓달이 되었을 때 길을 가고 있는데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던 아낙네가 갑자기 뛰어나와 영감님의 손을 잡으면서 "아니, 아버님 지금 어디를 가세요?" 하면서 손을 잡았다. 그것이 바로 양자며느리였던 것이었다. 그 며느리가 아버님의 손을 잡고 집으로 모시고 들어갔는데 방안에는 갓난 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며느리는 아이를 낳은지 사흘밖에 안

된 몸으로 빨래를 하러 나왔던 것이었다. 며느리는 마침 동네에 잔치집이 있어서 그 곳에 가서 음식을 가져왔다. 그런데 영감님은 몇 날 며칠 추위 속에서 제대로 먹지도 못한 상태여서 허겁지겁 먹은 음식이 체해 버렸다. 며느리는 시아버님에게 “아버님 방안에 가만히 누워 계세요. 제가 가서 빨래를 마저 해 가지고 올게요.”하고는 가서 빨래를 해 가지고 왔다.

며느리가 방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녀는 질겁을 했다. 영감이 아이를 깔고 누워서 아이가 죽어있었던 것이다. 며느리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를 하얀 헝겊에 싸서 한쪽에 놓아두었다.

얼마 후 잔치집에 갔던 남편이 돌아왔다. 아내는 남편에게 이래저래해서 아버님을 만나 집으로 모시고 와서 잔치음식을 가져다 드렸는데 그걸 먹고 체하셔서 누워 계시다 저렇게 아이를 깔아 뭉게 죽였다며 말했다. 그랬더니 남편이 정색을 하며 “자식은 또 낳으면 자식이지. 괜찮다.” 라고 말했다.

부부는 그 아이를 정성스럽게 싸 가지고 아이를 묻으러 산을 올라갔다. 자리를 잡고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얼마쯤 파냈을 때 큰 돌 하나가 구덩이를 막고 있어서 더 이상 파 낼 수가 없었다. 그 돌을 파내야만 아이를 묻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돌을 끝내는 파냈다. 그런데 그것은 돌이 아니라 번쩍이는 금덩어리였다. 더 놀라운 것은 그 금덩이를 캐내자마자 아이가 손안에서 튕겨져 나가 떼구르 구르더니 다시 살아난 것이었다.

그것은 그들의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켜서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다. 그 후로 그들은 홀 아버지와 함께 평생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1:2> 효행을 다하여 복 받은 양아들

옛날 한 늙은 노인이 아들 셋의 박대를 받다가 내가 문전 문전 다니다가 차라리 눈두렁에나 빠져 죽으리라 생각하고 집을 나와 이곳저곳을 다니던 중에 날이 저물었다. 잘 곳을 찾아 돌아다니다 멀리서 반짝이는 불빛을 발견하고 지팡이를 짚고 그 집에 들렀더니 젊은 부부가 나왔다. 그래서 노인은 “내가 길을 가다 날이 저물어서 그러니 하룻밤만 신세질 수 없겠소?” 했더니 그러시냐고 들어오시라고 하며 쾌히 승낙했다.

노인이 방으로 들어가자 부부는 진수성찬을 상 가득 차려 내와서는 그 노인이 밥을 다 먹을 때까지 앞에 앉아 있는 것이다. 상을 치우고 나자 좋은 이부자리를 깔아드리고 여기서 주무시라고 하니 노인은 이거 내가 너무 미안해 어떻하냐고 했다. 그러고는 아침이 밝아왔다. 폭 자고 일어나서 집을

나서려고 하니 두 내외가 못 가게 말리는 것이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모두 조실부모라서 부모님을 못 모셔 보았을 뿐만 아니라 아버님 어머님이라고 못 불러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일생의 원이 되어서 그러니 그저 아버님하고 말하면 오냐 라는 그 대답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러자 노인은 “여보게 그런 소리 말게 내가 낳은 자식들도 나를 싫다는데 남의 부모가 무슨 소용이 있다고 못 가게 하는가.”하며 지팡이와 신발을 내어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끝내 내놓지 않아 거기 주저앉게 되었다. 그 부부는 그 후 아침이면 일찍 일어나 절하고 알을 하고 저녁이면 이부자리를 펴놓고 안녕히 주무시라고 인사하고 절을 하고 자신들도 가서 자곤 했다.

하루는 화전을 하러 간다며 “아버님 오늘은 우리 두 내외가 화전밭을 하러 가는데 진지상을 차려 놓을 테니 아버님 오늘은 어려우시고 적적하시더라고 잘 계세요”하며 일을 나갔다. “그래, 그래라” 그러고는 부엌에 나가서 밥을 차려 먹으려니까 부뚜막이 무너져 있는 것이었다. 노인은 노느니 저거나 고쳐 주자해서 뒷걸에 나가 흙을 파니까 구덩이 아래 금쌀이 하나 가득이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곳을 흙으로 다시 덮고 다른 곳을 흙을 파다가 부뚜막을 고쳐놓고 며느리와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다.

“아버님 오늘 얼마나 적적하셨어요?” 하고 말했다. 노인이 말하기를 “우리 집에 벼나 쌀 좀 없냐?” 했더니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 그것을 들고 청수를 조금 떠가지고 가서 뒷걸으로 가면 내가 그곳에 표시를 해두었으니 너의 소원을 빌고 그곳을 파보거라 했다. 그래서 소원을 말한 뒤 땅을 파보았더니 금싸라기가 가득했다. 그것으로 인해 젊은 부부는 부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안중, 바깥종을 두고 땡땡거리며 살았다.

하지만 노인은 그런 편한 생활 속에서도 세 명의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젊은 부부에게 “애야, 내 소원 좀 풀어주련. 우리 집에서 거지 잔치를 석 달 열흘만 해다오” 했다. 그 말을 듣고 음식을 잘 차려서 거지 잔치를 석 달 열흘을 했으나 세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석 달 열흘의 마지막 날 저녁 거지 삼형제가 들어왔다. 그것을 본 노인은 며느리에게 저기 저 세 사람들은 따로 방을 주고 더 많은 음식을 차려주어라라고 말했다. 저녁에 잠을 자려하는데 시아버님이 그 방으로 건너가셔서 서로 부둥켜안고 데굴데굴 구르며 울기까지 하는 것이었다.

며느리는 남편을 깨워 그 거지 삼형제가 아버님의 아들인 모양이라고 말했다. 남편은 “아, 그래” 라고 말하고서 아침 일찍 일어나 큰 가마솥 가득 물을 끓여서 거지 셋을 목욕시켰다.

그리고 바지저고리를 꺼내어 깨끗이 입히고 재산을 똑같이 나누어 주었다. 그러나 아들 삼형제는 또 모든 재산을 날려 버렸고 양 아들은 부모를 잘 모신 복을 받아 재산이 나날이 번창해갔다.

4-3) 매부종고 누이종고의 유래

옛날에 장가를 못 드는 사람이 많았다. 그리하여 한 총각이 자신의 짝을 찾으러 집을 떠나 나갔는데 어느 한곳에 도착하니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다. 그제 시장한 김에 밥을 좀 달라고 했더니 한상을 거하게 잘 차려주어서 배부르게 먹고 나니 사랑에 앉아 총각을 지켜보던 노인이 나와 총각에게 “여보게, 내 부탁 하나만 들어주겠나?” 하였다. 총각은 무슨 말씀이냐고 물었다. 노인이 말하길 선도 안보고 결혼하는 자신의 자식이 불구자인데 돈은 달라는 대로 다 줄 터이니 하루만 신부집에 가서 대리로 혼례를 치러 달라는 것이었다.

총각은 사정이 하도 딱한 것 같아 승낙했다. 다음날 총각이 대리로 혼례를 치르러 가는데 길가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이었다. 신랑이 병신이라는 소문을 듣고 얼마만큼 병신인가 구경을 나온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너무나 잘 생기고 흰칠하게 잘 생긴 신랑을 보고 사람들은 헛소문이라고 웅성거렸다.

신부의 집에 도착하니 신부집에서도 안도의 한숨을 쉬며 잘 생긴 신랑을 보고 좋아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러면서 하룻밤을 친정집에서 자고 가라는 것이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당일날 가야 하는 것이었다.

드디어 신방에 들어간 신랑은 남의 색시를 건드릴 수가 없어 한숨을 땅이 꺼져라 푹 쉬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색시가 의아해하며 왜 그러냐고 물었다. 총각이 꾸물대다가 그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혼례를 올렸으면 내 남편이지 어디를 가려고 한단 말이냐며 아무 소리 하지 말고 옷을 벗겨달라고 했다. 그리하여 총각은 거기서 첫날밤을 지내고 부자인 색시집에서 눌러 살게 되었다.

얼마 후 그 둘은 총각의 집으로 인사를 가게 되었다. 신부집에서는 돼지다리 하나에 소다리 하나 약주술에 떡을 해서 가지고 갔는데 총각의 어머니는 결혼을 해서 돌아온 아들의 모습을 보고 “이게 꿈결이냐, 잠결이냐, 이게 웬일이냐?” 하며 놀라워했다. 그래서 그 사실을 말씀드렸다. 그런데 총각에게는 장가를 못간 오빠 때문에 시집을 못가고 있던 여동생 하나가 있었는데 그

여동생이 이 이야기를 듣자 “그럼 오빠 내가 그 병신한테로 시집을 갈게.” 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 병신 덕에 오빠가 장가를 들게 되었는데 그 집은 지금 어떻게 되었겠느냐고 동생이 시집을 가겠다는 것이었다.

그 후 총각의 동생은 그 불구자와 결혼을 해서 떡두꺼비같은 아들도 낳고 잘 살고 총각도 예쁜 아내와 잘 살았다고 해서 ‘누이 좋고 매부 좋고’라는 말이 나왔다고 한다.

4-4) 「신주(神柱) 개 물어간다」의 유래

과부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글방 선생님께 공부를 가르치게 했다. 그런데 글방선생이 아이에게 공부는 가르치지 않고 매일 네 어미 예쁘지, 네 어미 예쁘지라고만 물었다.

옛날에는 저녁이면 학생집에서 돌아가면서 글방 선생에게 저녁을 대접했는데 이번에는 그 과부택 차례였다. 그래서 오늘저녁은 우리집에서 식사하시러 오시래라 하면서 아이를 글방에 보냈더니 선생이 펄펄 나르는 명주 바지 저고리를 싹 해서 입고 구리모를 바르고 과부의 집으로 향했다. 그 선생은 과부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이다.

선생이 밥을 잘 먹고 가려고 하자 이미 이웃여자들과 이선생의 버릇을 고쳐주자던 터라 과부는 선생에게 “뭘 가시려고 그러세요 내가 영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했다. 주무시고 가라고 하자 선생은 좋아라했다. 이부자리를 짝 펴고 누우시라고 베개를 가져다주었더니 발가벗은 몸으로 이불 속으로 쓱 들어가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웃아줌마들이 이때다 싶어서 쿵쿵쿵 서넛씩 방으로 뛰어 들어오는 것이었다. 장난꾼들이 “아무개 아니 벌써 자는 거야” 그러니까 “아냐 안자” 했다. 이웃 아줌마들 “뭘 벌써 자려고 이불은 펴놓고 그래” 하며 선생의 옷을 감추었다. 그러고는 선생의 알몸을 덮고 있던 이불을 훌러덩 걷어 올렸다. 선생이 기겁을 해 옷을 찾으니 옷이 있을 리 없고 할 수 없이 그냥 뛰쳐나갔다.

동짓달 그 추운 밤에 밖에서 달달달 떨고 있는데 이놈의 여편네들이 가야지 손뼉을 치고 떠들고 깔깔깔 자지러지게 웃기만 하고 갈 생각을 안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생각 끝에 추위를 피해보려고 가마솥 아궁이로 기어 들어갔다. 아궁이속은 따뜻하긴 했으나 재로 인해 얼굴은 숯검덩이가 되었다. 날은 점점 밝아오는데 이놈의 여편네들은 갈 생각을 안하고 선생은 발가벗은 채로 집으로 달려갔다.

집에 도착해보니 마누라는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나 있었다. 다른 집에 가면 저녁 먹고 바로 오는데 과부집에서는 새벽이 되어서야 왔으니 말이다.

문을 안 열어줘서 문까지 따고 들어갔는데 목소리는 자기 영감 목소리가 맞는데 얼굴이 시꺼먼 사람이 들어오니까 마누리가 놀라서 나자빠진 것이었다. 선생은 애들이 켈까봐 다락으로 뛰어올라갔다.

잠시 후 나와서 씻고 나서 선생은 앙심을 품고 이걸 어떻게 갚아야 하나 하다가 그 과부의 아들을 가르치면서 니가 장가 들러갈 때 날콩물을 한 사발 가득 갈아서 먹고 가면 니가 잘 사니까 장가 갈 때는 날콩물을 꼭 먹고 가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정말 그가 장가갈 때 선생말대로 날콩물을 한 사발 먹고 혼례를 치르러 갔는데 설사가 나고 똥이 마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신부는 신랑이 옷을 벗겨 주기만을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신랑은 금방이라도 쌀 것만 같은 것을 발뚧꿈치로 간신히 막고 있었다. 색시가 "아니, 어디가 편찮으신 거예요. 왜 그러세요?" 하며 식은땀까지 흘리는 신랑에게 묻자 신랑은 그 선생이 가르쳐준 이야기를 신부에게 했다. 자초지종을 들은 신부는 아 그러면 진작 말씀을 하시지 왜 그랬냐고 하면서 밖에 있던 종을 불러서 상기등에 있는 된박을 떼어오라고 해서 거기다 똥을 가득 싸게 했다. 그것을 색시가 보자기로 싸고 또 싸고 해서 한쪽에 밀어놨다가 그 다음날 길떡해서 가는데 그 종을 하나 불러 가지고 그 보자기를 선생님에게 갖다 주라고 보내는 것이었다. 그것도 모르고 선생은 "아 그래도 과연 과부라 다르다. 아들 교육을 잘 시켰다"며 좋아라했다.

사당에 상을 놓고 신주를 내다놓은 후에 그 보자기를 놓고 보자기를 풀르면 또 보자기가 있고 또 풀르면 또 있고 나중엔 골이 나서 주먹으로 그것을 후려 갈겼더니 이놈의 된박이 그냥 깨져 가지고 된똥 바다가 되고 말았다. 그렇게 되자 개가 신주를 물고 냅다 도망을 갔다. 그러자 선생이 그걸 보고 어쩔 줄 모르며 소리쳤다. 신주 개 물어 갔네, 신주 개 물어 갔네라고 했다.

4-5) 혼인할 때 가문을 중시하게 된 이야기

옛날에 한 남자가 혼례를 치렀다. 그런데 색시가 첫날밤에 사내아이를 낳은 것이다. 결혼 전에 다른 남자와 관계를 맺었던 것이다. 그러나 신랑이 얼마나 착한지 장모를 불러 가지고 본병이 있는데 이렇게 배가 아플 적에는 하얀 쌀밥에 미역국을 먹으면 배가 가라앉는다고 하면서 배가 아파 죽겠다

고 하자 장모가 쌀밥에 미역국을 싸 가지고 왔다. 신랑은 그것을 색시에게 먹였다. 그러고는 아이는 잘 싸서 났다가 자기집으로 가려면 꼭 거쳐 가야 하는 다리 밑에 새벽에 아이를 가져다 놓았다.

그 날 자신의 집으로 종들과 함께 가다가 다리 위에서 말했다. “애들아 여기서 어린아이 울음소리가 나는 것 같지 않니?” 라고 말했다. 신랑은 이때다 싶어 다리 밑에 좀 내려가 보라고 했다. “아이고 서방님 갓 난 사내아가 있어요” 신랑이 말하기를 “아 그로하여 장가들어 갈 때는 이런 것을 만나면 대운이 트이니까 잘됐다. 그 아이를 데리고 와라” 하여 그 아이를 집에 데리고 왔다.

자신의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살았다. 그러다 일곱의 아들을 내리 놓아 모두 여덟의 아들을 거느리게 되었다. 그런데도 이런 말 저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다가 그의 환갑날 아들들을 모두 모아놓고 말했다.

첫날밤에 색시가 애기를 낳았더라. 그렇다면 그 여자와 살겠느냐, 버리고 가야겠느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첫날밤에 태어난 그 자식이 말하기를 그런 여자는 배뎀기를 그어 죽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나머지 일곱은 아무도 모르게 그냥 조용히 살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그 남자가 생각한 것이 아 씨(가문)는 속일 수가 없는 것이구나 했다는 것이다.

4-6) 자식의 간을 빼 먹은 문둥병 걸린 아버지의 이야기

옛날 효성이 지극한 아들과 며느리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아버지가 문둥병에 걸렸던 것이다. 약이 될 수 있는 것은 다 해드려 봤지만 효과가 없었고 사람 간을 먹여야만 나을 수 있다는 말이 있을 뿐이었다. 효자 아들은 누굴 잡아다 간을 구할 수도 없고 해서 고민 끝에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아버지를 살려야 할 텐데 그러다 천상 내 자식을 죽여서 간을 내어 아버지를 살려야해, 왜냐하면 자식은 또 낳으면 되는 거니까하고 생각했다.

그래서 부부는 아이를 데리고 깊은 산중으로 가다가 갑자기 아이의 질문에 당황했다. 아이는 아버지에게 “아버지 어디 가는 거예요 이렇게 멀리 가면 어디 좋은데 가는 거예요?” 부부는 흐르는 눈물을 애써 감추며 목적지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아이를 죽이려고 위해 칼을 빼어든 순간 아이의 비명소리를 듣

고 그 근처를 순찰하던 순경에게 붙잡혔다. 순경은 그들에게 왜 그랬냐고 물었다. 부부는 이래저래 해서 우리 아버님이 못된 병에 걸리셨는데 사람의 간을 먹어야 하는데 누굴 죽일 수도 없고 해서 내 자식을 죽여 간을 해 드리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듣던 순경은 아이를 살려내기 위해 꾀를 생각해냈다. 그러고는 “당신이 당신 자식을 해쳐서 간을 해드리면 아무 효과가 없으니 나에게 이 애를 주시오. 그러면 내가 이 애를 해하여 간을 해서 보내드리리다.” 라고 말했다.

집에 아이를 데리고 온 순경은 자기가 몇 십 년 동안 길러온 개를 잡아 간을 내어 그 아이의 집으로 보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그 간을 먹고 병이 씻은 듯이 나은 것이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병이 나은 후 매일같이 아무 개 어디 갔냐며 애타게 손자를 찾았다. 그렇게 밤낮 울음으로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 그 아이는 순경의 집에서 공부도 하며 점점 커가고 있었다.

그러다 장가를 가게 되어 친부모를 찾아보려고 큰 쌍가마를 타고 오고 있는데 그 모습을 멀리서 보고 있던 그의 친아버지가 중얼거리기를 “아, 어떤 사람은 자식을 잘 키워서 쌍가마를 타고 부모한테 가는구나.” 하며 나는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자식도 없이 사나하며 한숨을 푹 쉬고 있는데 그 쌍가마 행렬이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멈추는 것이 아닌가. 그러더니 두 내외가 나와 자신들 부부에게 절까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데 여기 이렇게 와서 절을 하느냐고 묻자 자신이 아들이라고 했다.

“아니 그럴 리 없다.” 내가 아들 하나 있는 것을 죽여서 아버님 약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어떤 순경이 내가 잡아다 해 드리마해서 보냈으니 나는 아들이 없다라고 했다.

그러자 아들이 그 순경이 나를 살려서 이렇게 공부까지 가르쳐서 장성시켜 주셨다고 말했다. 그것은 그의 부모 모시는 정성이 하도 지극하여 개간으로도 아비의 병을 고치고 아들까지 얻은 것이다.

그리하여 며느리는 양가 부모를 모두 각듯이 모셔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4-7)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는 이야기

한 어둔하고 가난한 형제가 살고 있었다. 그를 늘 불쌍히 생각하고 있던 선생이 하루는 그에게 “내 동태를 한 짝 사 줄테니 그걸 팔아서 동태장사를

해먹고 살아 보거라” 했다. 그러고는 동태 한 짝씩을 각자의 지게에 지어주었더니 두 형제가 이걸 어떻게 팔아야 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선생이 그저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동태 사시오. 동태 사시오” 하면서 한 꾸러미씩 가지고 갈 거라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는 동태집을 젊어지고 두 형제가 부지런히 걷고 있는데 저 멀리 산꼭대기에 사람들이 버글거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장사를 지내고 있었던 것이다. 그 곳에 도착해서 지게짐을 내려놓고 “동태 사시오. 동태 사시오” 목청높이 외치기 시작했다. 장사를 지내던 이들이 놀라 뭐 이런 것들이 있냐며 호되게 때렸다. 형제는 집으로 돌아와 끙끙 앓고 있었다.

그 다음날 아침 선생이 와서 얼마나 팔았냐고 물었다. 그러자 “괜히 장사 지내는데 갔다가 매만 맞고 왔어요” 하니까 “그런 곳에 가서는 그저 구덩이를 열심히 파주어야 사람들이 모두 한 꾸러미씩 사가지” 라고 말했다.

형제는 알았다고 하면서 다음날 아침 길을 떠났다. 어느 마을에 도착하니 잔치가 한창이었다. 북치고 장구치고 흥이 넘쳤다. 그런데 갑자기 형제가 들어와 마당 가운데를 파니까 화가 난 잔치집 주인이 지게작대기로 냅다 후렷했다.

두 형제가 집으로 돌아와 아픈 몸을 달래며 끙끙 앓고 있으니까 또 선생이 와서 “그래 오늘은 얼마나 팔았니?” 했다. 이러저러한데 갔다가 매만 맞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선생은 “그런 곳에 가서는 장구를 치고 소리를 좋게 하고 그러면 물건이 다 팔릴 것이다” 했다.

그 이튿날 동네의 어느 집에 불이 났다. 사람들은 불을 끄느라 아우성이었다. 그곳을 지나가던 형제는 장구를 가지고 와서 덩기덕 쿵덕 장구를 치고 노래까지 불렀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놈이 불을 지른 놈일 거라며 그들을 때렸다.

집에 와서 선생에게 자초지종을 말했더니 그런 곳에 가서는 물을 날라주고 해야 한다고 했다.

얼마 후 대장간 앞을 지나던 형제는 옳지 하고는 큰 양동이에 물을 한가득 담아 대장간 안에 퍼 부었다. 화가 난 대장장이에게 흠씬 두들겨 맞고 선생에게 가자 그럴 때는 망치로 쇠붙이를 때려주고 다듬어 주어야 동태를 사간다고 했다.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인 후 길을 가던 중 형제 앞에 싸우는 두 노인의 모습이 보였다. 이번에 꼭 동태를 팔아보리라 마음먹고 들고 있던 망치로 싸우는 두 노인을 향해 휘둘렀다. 그 일로 인해 두 노인은 즉사하고 형제는 또 두들겨 맞았다.

선생은 답답하여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는 것이라 말해 주었다. 오늘

은 꼭 동태를 팔기로 굳게 마음을 먹은 형제는 열심히 사람들을 찾으러 나섰다. 그러다 밭 두렁 위에서 싸우는 황소 두 마리를 발견했다. 형제는 달려가서 황소에게 말했다. “손님들 왜 싸우세요. 말로 하세요” 하며 황소가 싸우는 것을 말리다가 소의 뿔에 받혀 저 멀리 수수밭까지 나가 떨어졌다. 그 후로 수숫대가 형제의 피로 인해 붉게 물들게 된 것이라고 한다.

4-8) 억만리의 유래

중국사신이 이 조선 땅에 금박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금송아지가 묻혀있다는 말이 있으니 그걸 알아 가지고 오라는 분부를 받고 조선으로 넘어왔다. 이 이천 땅까지 걸어오기 위해 짚신을 열 개를 해서 등에다 매달고 닳지 않는 쇠지팡이를 짚고 왔다. 이천 근처에 다다랐을 때 길가에 있던 사람에게 금박산이 어디냐고 물어봤는데 그 이는 앞일을 훤히 내다보는 그런 위인이었다.

그리하여 그가 묻기를 “금박산은 왜 찾아가시오” 하니까 난 중국에서 온 사신인데 거기에 금송아지가 묻혔다고 해서 조사를 하러 온 것이라고 했다. 그 위인은 이 사신을 돌려보내지 않으면 큰 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 사신에게 말했다. “여보시오 거기 가려면 늪어 죽을 때까지 못 가오” 그러자 사신이 “왜 그러오” 하고 물었다. “그곳을 가려면 이천 역을 지나서 보름을 다리를 건너서 억만이나 되는 고개를 넘어서 오천리 먼 길을 지나서 또 금박산에 가려면 낭떠러지를 지나야 하는데 한번 떨어지면 귀신도 모르게 죽는 곳이요” 그래도 가겠소?” 했다. 그러자 사신은 뒤도 안보고 돌아갔다고 한다.

4-9) 옛날에 글방이 있던 시절 이야기

옛날에 글방에 한번 가려면 매일 산길을 걸어 다녀야 했다. 한 마을에 사는 두 명의 아이가 글방에 다녔는데 하나는 가난한 집 자식이었으나 공부를 잘했고 영특하였으며 또 하나는 부잣집 아들이었으나 공부를 못해 매일 선생님께 매를 맞기 일쑤였다. 하루는 부잣집 아들놈이 자신이 매를 맞는 것이다 그 가난한 집 아들 때문이라고 생각하여 속으로 앙심을 품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애를 따라가 “이 놈의 자식아, 난 너 때문에 매일 매 맞는 거야”

하며 들고 있던 쇠꼬챙이로 그 아이의 두 눈을 찔렀다. 붉은 선혈이 사방으로 퍼지고 비명소리가 산을 흔들었다. 부잣집 아들은 너무도 놀란 마음에 집으로 줄달음질쳤다.

가난한 집의 부모가 “우리 애는 글방에 갔다 온다며 깜깜 무소식이니 이 일을 어찌나” 하며 아이를 찾느라 난리가 나 있는 것을 보고도 시치미를 뚝 떼고 있었다. 그때 가난한 집 아들은 아픔을 못 이겨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있다가 그래도 인가를 찾아야 자신이 살 수 있을 것만 같아 더듬더듬 기어서 드디어 인가를 찾았다.

아이가 밖에서 “안에 아무도 안 계세요?” 라고 몇 번이고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그리하여 아이는 안방 문을 찾아내어 방으로 들어가 다락 안에 숨었다. 그런데 얼마 후 도깨비들이 우르르 뚝뚝 난리를 치며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 그러더니 도깨비 하나가 “아하, 저기 저 다락에 어느 한 인간이 와서 있는데 그 인간이 참으로 불쌍하구나” 하고 말했다. 잠시 후 다락문을 벌컥 열고는 “얘야, 너 왜 여기와 있니?” 하고 물었다. 아이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부잣집 아이로 인해 일어난 그 일을 이야기 했다. 그러자 도깨비가 방안을 향해 “토끼선생아 점 좀 쳐봐라” 했다. 아이가 “당신들 누구세요” 라고 묻자 “우리는 수 백 년 전부터 이 집에 사는 도깨비란다” 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토끼에게 “점 꽤가 나왔느냐” 하자 토끼가 “예” 했다. 말해보거라 했더니 “내일 아침 해가 동쪽에서 환하게 뜨면 아이는 엉금엉금 기어서 밖으로 나갈 것입니다. 기어나가면 동쪽으로 가지를 뺀 약초가 있을 겁니다. 그것을 손으로 싹싹 비벼서 눈에다 계속 바르면 나중에 눈이 떠질 것입니다. 그런 후에 또 눈이 떠지면 그 길로 산을 따라 내려가십시오. 그러면 마을 하나가 나올 것입니다. 지금 그 마을은 가뭄이 들고 식수조차 없어 고통 받고 있습니다. 내려가서 마을에서 큰 고목나무를 찾아 그것을 베어내십시오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실컷 먹고도 남을 물이 매일 샘 솟을 것입니다.” 하고 했다.

도깨비가 “아, 그러하냐 그럼 되었다. 우린 이만 자야 내일 일을 나가야하니 말이다.” 하고 모두 누워 잠을 잤다.

다음날 아침 아이는 토끼가 일러 준대로 동쪽으로 해가 뜰 때 밖으로 나와 엉금엉금 기었다. 가다보니 정말 손에 잡히는 가지 하나가 있어 향기를 맡아보니 냄새가 향기로웠다. 토끼의 말대로 비벼서 눈에 바르니 정말 눈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아이는 산을 따라 내려갔다. 마을을 찾아가 보니 마을 사람들이 식수 걱정으로 고통 받고 있었다. 이에 아이가 마을사람들에게 이 마을에서 가장 큰 고목나무가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물어 그 곳에 이르러 이 나무를 베면 마을에서 더 이상 식수 걱정은 없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누구도 어린아이의 생떼 같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게다가 그 나무는 마을에서 위하는 나무라며 못 벤다고 난리였다. 아이가 끝내 물러나지 않고 나무를 베라고 말하자 동네 사람들이 어디 한번 속는 셈치고 베어보자는 동요가 일어났다. 그리하여 그 나무는 드디어 베어졌다. 나무가 베어지자마자 옥수같은 맑은 물이 팔팔팔 흘러 넘쳤다.

이 일을 들은 사또가 아이를 친히 불러 상금을 주시고 그의 뛰어난 영특함을 보시고 공부를 시켜 과거에도 급제해 나라에 큰일을 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다.

4-10) 하루에 팔천장 볼 수 있느냐? 이야기

이천 사람들은 매우 부지런하다. 왜 그런고 하니, 하루에 8천장을 보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루에 8천 장(場)을 볼 수 있느냐? 아무리 날아다녀도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이천 사람은 닷새에 한 번 8천 장을 보고도 남는다. 오천장을 보고 이천장을 본 다음에 집에 와서 천장을 보면 8천장이 되지 않는가.

4-11) 헛다리 유래

예전부터 '헛다리 짚었다'라는 말에서 헛다리라는 말이 유래가 되었고 도량이 많아서 다리를 많이 놓았다. 회로다리를 만들었고 양각산 장수가 도드람산으로 건너가다가 자빠졌다. 그래서 헛다리 짚었다하여 헛다리라 한다.

(5) 목리

[목리 1: 1]

* 1998.4.12. 09:00-13:00. 목리 이장님댁에서, 홍순석 · 김소연 · 전미라 조사, 김소연 정리 제보자 박부자(57세, 여)

* 목리 이장님 댁에서 민요를 조사하는 도중, 제보자인 이장님 사모님에게 이곳의 전설을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하자, 아는 게 없다고 하시면서 <팔죽바

위> 전설 1편을 들려주셨다.

5-1) 팔죽바위

팔죽바위는 마장면 목리에 있다. 옛날에 도읍을 한양으로 정하고 각지의 명산이나 바위를 삼각산에 모이도록 하였다. 이때 지리산에 머무는 팔죽할머니 한양 삼각산 신령님의 명을 받아, 큰 바위 하나를 앞치마에 싸 가지고 가다가 잘못하여 떨어뜨렸다. 목리에 있는 팔죽바위가 그것이다. 팔죽할머니가 떨어뜨린 바위라고 해서 이름 붙여진 것이다.

[목리]

* 1998.4.12. 09:00-13:00. 목리 이장님택에서, 흥순석 . 김소연· 전미라 조사, 김소연 정리. 제보자: 이세채(68세, 남)

* 이 자료는 목리 지명을 조사하러 이장님택을 방문하여 이 동네에서 민요와 전설에 대해 알고 계신다는 이세채씨를 소개시켜주셔서 저명산에 대한 유래를 듣게 되었다.

5-2) 저명산의 유래

옛날에 한 노인이 있었는데, 그 노인은 바위에 붙어 있는 버섯을 따서 생계를 유지하였다. 그날도 할아버지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산으로 버섯을 따러 가셨다. 산꼭대기 나무에다가 동아줄을 묶어 놓고 줄을 타고 버섯을 따려고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위에서 동물의 울음소리가 들려오는 것이었다. 할아버지께서 이상히 여겨 줄을 타고 위로 올라가 보니 멧돼지 한 마리가 울고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저명산이라는 이름이 생겼다고 한다. (사진 3:2)

[목리]

* 1998.5.29. 14:20-16:10. 영보사에서, 흥순석 . 김소연 조사, 김소연 정리 제보자: 성진 스님(31세, 남)

* 저명산 영보사 사찰조사를 위해 방문하였다가, 산신제에 관련한 사항을 채록하면서 추가로 들려준 이야기이다. 영보사의 산신각에 기도하면 효험을 얻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제보해준 자료이다.

저명산은 도드람산이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산신령의 영험이 컸다. 이 절터가 본래는 산신도량이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산신제를 지낸다. 그만큼 산신령을 위하는 것이다. 그런데, 1987년에 산신각을 지금의 자리에 지을 때 이상한 일이 있었다. 산신각 밑은 바로 바윗돌이다. 바닥 가운데에 뽕죽하게 튀어나와 윗부분을 다듬어서 평평하게 만들고, 그 위에 마루판을 깔았다. 산신각을 다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는데, 이상하게도 당시의 주지스님인 법정스님과 신도들이 함께 “산양대신 산양대신”을 염송하는데도 멀리서 듣기에는 “아이고 아이고” 곡하는 소리처럼 들렸다. 마을에서 이 소리를 듣던 주민들이 하도 이상해서 절에 올라와서 보니, 스님은 “산양대신”을 염송하고 있는 것이다. 산신제를 끝내고서 이 이야기를 들은 스님은 마루를 뜯어내고 소금물을 끓여 붓고 재를 뿌린 다음, 다시 마루를 깔았다. 이후부터는 그 같은 변괴가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산신각은 많은 영험을 보였는데, 어떤 이가 아이를 낳기 위해 7일간 열심히 기도한 다음 아들을 낳았는데, 얼굴 모습이 산신령을 닮았다고 한다. (사진 2:20)

(6) 표교리

[표교리]

* 1998.5.9. 09:00-12:00. 표교1리 밭에서, 강승범 . 박광준. 정혜경 . 박장용 조사, 박광준 정리. 제보자. 서강윤(76세, 남)

* 이 자료는 표교1리 지명을 조사하러 이 동네에 오래 사신 분을 찾아가보니, 밭으로 일을 나가시고 안 계셔서 밭으로 가서 지명과 저명산의 유래 등 몇 편의 전설을 들을 수 있었다.

6-1) 도드람산의 유래

옛날에 한 장수가 지나가다 산이 하도 좋아 산을 한번 시원스레 돌아보는

데 저 높은 산봉우리 잔등에서 돼지소리가 세 번 꿀 꿀 꿀 나더란다. 그리하여 붙여진 이름이 현재의 이름이 되었다고 한다. (사진 3:2)

6-2) 영보사의 유래

신이 내린 어떤 이가 무당으로 한평생을 살다가 죽기 전에 자신의 무구들을 도드람산에 묻어두었다. 그곳이 명산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세월이 지나 어느 박수무당이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 하얀 옷을 입고 백발의 수염을 기른 할아버지가 나타나 “이천에 도드람산에 가서 어디를 파 보거라.” 했다.

이 박수무당이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 그곳을 찾아가서 그곳을 곡괭이로 파보니 온갖 무구가 다 갖추어진 보따리가 있었다. 그걸 꺼내어 회역리에서 박수무당을 하며 살았다. 그리하여 나중에 도드람산에 절을 세우고 세상을 떠났다. 그 절이 바로 영보사라 한다. (사진 2:18-21)

6-3) 빈대가 많아 절에 불을 지른 이야기

옛날에는 도드람산 기슭에 유명한 절이 있었는데 불타 없어졌다. 지금도 이름을 알 수 없는 절터가 있는데, 빈대절터라는 곳이 있다. 본래 이 절은 신도가 많았다. 그런데도 이 절에는 스님들이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였다. 절에 빈대가 많기 때문이다. 절은 살생이 금해진 곳이라 빈대가 많아도 그대로 둘 수 밖에 없었다. 점점 빈대는 늘어갔다. 스님들은 고행삼아 참아 내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었다. 급기야는 절을 찾아오는 신도들도 빈대가 겁이 나서 발길이 점점 끊어졌다. 절의 형편은 점점 기울고, 스님들도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부처님을 모시고 절을 떠나게 되었다. 빈 절에 빈대가 더욱 번성해지자 마을사람들은 절에 불을 질렀다. 결국 절은 빈대 때문에 불타 없어진 것이다. 지금도 그 곳엔 대웅전 터가 뚜렷하고 축대도 남아 있다.

(7) 이치리

[이치리 1: 1]

* 1998.4.12. 09'00-13:00. 이치2리 서용수씨 댁에서, 장현덕 · 강승범 · 한윤경 · 정혜경 · 박장용 조사, 박장용 정리 제보자 박차근(68세, 남)

* 이 자료는 비가 오는 날씨 덕분에 모두들 마을회관에 모여 계셨다. 약주를 드시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시며 느티나무 전설을 말씀해 주셨다. 또박또박한 말투로 친절하고 천천히 말씀해 주셨다.

7-1) 안배터 우물에 얽힌 이야기

이치리 안배터 마을에는 수령이 500년이나 된 느티나무가 있고, 그 옆에 우물이 있다. 옛날부터 이 느티나무와 우물가에서 당고사를 지내 왔는데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안배터 마을은 옛날에는 물이 귀하였다. 옛날에 가뭄이 들면 이웃 마을에서 물을 얻어다 먹었는데 여간 고생이 아니었다. 언젠가 이 마을에 도사가 지나가다가 시주를 얻기 위해 한 집에 들렀다. 그 집 주인은 어려운 살림에도 정성을 다해 시주를 하였다. 도사는 집 주인이 물 때문에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는 좋은 방책을 이야기 해주었다. 지금 느티나무가 서 있는 곳에 데려가 “이곳에 나무를 심으면 물이 나올 것” 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도사의 말을 동네 사람들에게 전하고 함께 그 말에 따라 느티나무를 심었다. 의외로 이 나무는 박한 땅에서도 잘 자랐고, 주변에는 물이 고였다. 도사의 말을 확실히 믿고 다시 우물을 파니 물이 샘솟았다. 모두들 감탄하였다. 이후부터는 느티나무와 우물가에서 당고사를 매년 지내 왔다. 지금도 매년 정월에 이곳에 모여 우물고사를 지내고 하루를 즐기며 논다. (사진 4:30-31)

[이치3리]

* 1998.4.12. 14:00-18:00 이치3리 신옥규씨 댁에서, 박광준. 장현덕 · 강승범 · 정혜경 조사, 박광준 정리. 제보자: 신옥규(77세, 여)

* 이 자료는 이치3리 동네 입구를 지나다가 할머니들이 마실을 오셔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 할머니들이랑 같이 그 날 잔치하는 집이 있어 손으로 만든 두부를 가지고 오셨다. 김치를 먹으면서 옛날 얘기를 들었고 할머니들이 손자. 손녀처럼 대해 주시듯 들려준 이야기이다.

7-2) 공동묘지 전설

이 마을에는 공동묘지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는 지금과는 달리 그 크기가 무척 컸다고 한다. 옛날 그 공동묘지에서는 비오는 날이나 궂은 날이면 햇불 같이 생겼으나 그 보다는 훨씬 큰 도깨비불이 왔다 갔다 하며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는데 동네의 어떤 남자는 비오는 날만 되면 공동묘지를 찾아가 그 도깨비불과 함께 놀았다고 한다.

(8) 각평리

[각평리]

* 1998.4.11. 14:00-16:00, 옥수암에서, 박장용·강승법 조사, 김소연 정리.

제보자: 임덕재(64세, 남)

* 문화유적 조사를 위해 옥천사를 들렀다가, 주지 스님을 뵈고 창건 유래담을 청해서 채록하였다. 옥천암의 유래는 임혜봉 스님이 지은 『이천불교문화사』에도 수록되어 있는데, 내용도 비슷하다.

8-1) 옥수암(玉水庵)의 유래

옥수암은 호법면과 마장면의 경계를 이루는 와룡산(臥龍山) 북쪽 기슭에 있는 작은 암자이며, 행정구역상으로는 마장면 각평리에 속한다.

<옥수암창건기(玉水庵創建記)>에 의하면 이 암자는 조선 세종대왕 연간에 서원대사가 처음 창건하였다고 한다. 오랫동안 불사를 이어오다가 언제부터인지 절을 돌보는 사람이 없어 폐사(廢寺)되었다. 지금부터 약 2백여 년 전, 암자 부근에 선영을 모신 동래 정씨, 남양 홍씨 전주 이씨, 재령 이씨 등 네 문중에서 조상들의 명복을 빌기 위해 새로 암자를 건립한 것이 지금의 옥수암이 되었다고 한다.

처음 옥수암을 지을 때 일이다. 처음 절을 지을 때는 지금의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 터를 닦는데 그 터에서 수없이 진드기가 기어 나와 할 수 없이 일을 중단하게 되었다. 그런데, 하루는 일터에 쌓아 두었던 대들보가 감쪽같이 없어졌다. 이상하게 여긴 주지승이 인부들을 동원하여 찾아보았더니,

지금의 절터에 저절로 옮겨와 있더라는 것이다. 이것은 필시 부처님의 뜻이라고 하여 그 자리에 절을 지었다. 이후로는 아무런 일이 없었다. 절 뒤에서 샘솟는 옥 같은 샘물에서 이름을 따다가 '옥수암'이라 하였다. 최근에는 절의 규모를 넓히고 옥천사(玉泉寺)로 이름을 고쳤다. (사진 2:22)

[각평리]

* 1998.4.11. 17:30-18:30. 각평리 박용국씨 댁에서, 장현덕·박장용·정혜경 조사, 정혜경 정리. 제보자 박용국(80세, 남)

* 이 자료는 각평리 길을 가다가 쉬고 계신 할머니를 만나 박용국 할아버지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여든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정정하시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시고 많은 이야기를 알고 계셨다. 친절하게 알려주셨고 길거리에서 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고 할 일이 많으시다고 집으로 돌아가셨다. 그래서 할아버지 댁으로 찾아가 이야기 하나를 더 듣고 왔다.

8-2) 林中石전설

옛날에 앞을 못 보는 노인이 손자와 살았다. 어느 날 노인과 손자가 길을 가는데 손자가 배가 고프다고 말을 했다. 하지만 가진 것은 아무 것도 없는 사람들이었다. 노인은 손자에게 말을 했다. "길을 가다가 예쁜 돌이나 나무가 있으면 주워라"고 말했다. 손자는 예쁜 돌(石) 하나를 주웠다. 할아버지는 손자에게 그 돌을 던지라고 말하고 손자는 돌을 숲(林)을 향해 던졌다. 돌은 숲 중앙(中)에 떨어졌다. 위의 이야기를 정리하여 보면 임중석(林中石)이란 의미가 된다.

노인은 손자에게 임중석이란 사람 집을 찾게 한다. 들판 한 복판에 있는 임중석이란 사람의 집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노인과 손자는 그 집 대문 앞에서 "여봐라" 하고 외쳤다. 그러자 그 집 종이 나와 그 사람들을 보고 내어 쫓아내려고 했으나 노인이 점을 잘 친다는 소리에 그들을 집안에 들이게 되었다. 주인은 노인에게 점쳐 주기를 청했지만 노인이 자고 일어나야 점개가 잘 나온다고 해서 아침이 밝기를 기다렸다.

날이 밝은 후 노인에게 주인은 점치기를 요구했는데 노인이 "말하기를 당신은 단명을 합니다." 라고 말했다. 놀란 주인은 살기 위한 방법을 노인에게

구했더니 노인은 주인에게 “가장 잘하는 것이 무엇이나”고 하자 활랑이라 하였다. 노인은 “활로 무장을 하고 밤이 되기를 기다리시오 그리고 밤이 되면 당신은 살생을 두 번 하십시오. 그래야 당신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살 방법을 일러주었다.

그래서 주인은 살생을 하기 위해 마굿간에 갔지만 차마 말을 죽일 수 없어 도로 나왔다. 두 번째는 첩의 방에 들어갔다. 그 곳에는 너무 아름다운 꽃이 있었다. 주인은 그 꽃을 향해 활을 쏘았다.

그 때 병풍 뒤 칼을 든 한 남자가 있었는데 그 남자는 첩이 남편을 죽이려 숨겨둔 남자였다. 놀란 주인은 그 남자와 첩을 모두 죽였다. 그래서 이 주인은 살 수 있었다.

이리하여 주인은 노인에게 감사의 뜻으로 재산 반을 주겠으니 같이 살자고 했지만 노인은 이 모든 것을 거절하고 손자의 뒷일을 부탁한다고 했다. 이 노인의 소문은 세상에 퍼져 나라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다.

그래서 나라님이 노인을 불렀다. 임금은 궤짝에 쥐 한 마리를 잡아놓고 노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점을 잘 친다고 하던데 그럼 이 궤짝에 쥐가 몇 마리 들어 있느냐”라고 물었다. 노인이 말하기를 “두 마리의 쥐가 있습니다.”라고 했다. 나라님은 노인의 말에 너무도 괘씸해 노인을 죽이라고 명했다. 그런데 궤짝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쥐는 두 마리였다. 그 쥐가 새끼를 낳은 것이다. 나라님은 자신이 크게 실수 한 줄 알고 자신이 내린 지시를 서둘러 취하려 했지만 벌써 노인이 죽은 후였다. 그래서 나라님은 노인의 뜻을 생각해 손자를 찾아 벼슬을 주고 훌륭한 인물을 만들었다고 한다.

8-3) 문부쟁이 전설

옛날 옛날에 두 형제가 살았습니다. 형은 아파 몹시 앓았다. 동생은 문부쟁이였다. 형이 악화되자 형은 아들을 시켜 “삼촌에게 살 방도를 구해오너라” 했다. 동생이 조카에게 말하기를 “논 7마지기 땅문서와 소 1마리를 가져오면 그 방법을 일러 주겠다.” 고 했다. 하지만 형은 동생의 행동이 괘씸해 살기를 포기했다. 너무도 병이 악화되고 죽음이 가까워지자 하는 수 없이 조건을 들어주었다.

동생은 조카에게 짚신 3켢레, 담배 3묶음, 돈 3냥, 밥 3그릇을 다리 밑에 놓고 지켜보라고 했다. 그런데 3명의 저승사자가 길을 지나가다 다리 밑에 쉬려고 했다. 그곳에 놓인 짚신, 담배, 돈, 밥을 보고 두 사람은 지치고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가기를 청했다.

하지만 한 저승사자만이 먹기를 만류했지만 두 사람이 먹기를 청했기 때문에 먹기로 했다. 밥을 먹고 나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때마침 노자 돈과 짚신이 떨어져 그곳에 있는 짚신과 돈을 사용했다. 이것을 지켜보던 형의 아들은 저승사자에게 아버지의 사정을 말하고 살려 달라고 간청했다. 신세를 진 저승사자들은 거절할 수가 없어서 고민을 하다가 아랫마을의 이름과 성이 같은 사람을 대신 데려가기로 했다.

그래서 형은 병에서 낳았고, 동생은 형이 다 나은 후에 조카를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점을 치기 위해 땅문서와 소를 가지고 오라고 했지만 이걸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형을 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젠 형의 병이 완쾌되었으니 땅문서와 소는 가져가라.”고 하며 모든 것을 되돌려 보냈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 두 형제는 의중계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한다.

(9) 덕평리

[덕평1리]

* 1998.4.11. 18:30-21:00' 덕평1리 허진씨 댁에서, 강승범 . 한)윤경 . 박장용 조사, 강승범 정리, 제보자: 허진(59세, 남), 이기형(64세, 남)

* 조사 전에 이장님으로부터 제보자를 추천 받고 조사 당일 오전에 찾아보았으나 농사일로 인해 바쁘셔서 자료를 채록할 수 없었다. 저녁에 다시 찾아보니 반가이 맞이하여 주시면서 자세히 말씀해 주셨다.

9-1) 임방동산 전설

옛날 임산이라는 사람이 삼형제와 함께 이곳에 터를 잡고 살았는데 서로 썰레줄(지금의 통신 줄)을 매고 살고 있었다. 그 집이 워낙 부잣집이다 보니 주위 사람들이 그 집을 많이 왕래했고, 음식 등을 많이 가져가는 등 번거로운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걱정스러운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 어떤 스님 한 분이 찾아와 시주를 해 가는데 집주인인 임산이 스님에게 말하기를 “전 주위 사람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 나에게 도움을 구해가니 그 번거로움이 이

만저만이 아닙니다.” 하고 걱정을 토로했다. 스님이 이 말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다 말하기

를 “저기 보이는 저 길에 팽이바위가 보이시지요. 저 팽이바위를 깨면 얼마 안가 손님이 오지 않을 것이니 그렇게 하여 보시오.” 하니, 임산형제는 이 말을 듣고 귀가 솔깃하여 곧 그 팽이바위를 깨어 버렸다.

그 후 얼마안가 스님의 말대로 손님들은 점차 줄어들었고 나중엔 아무도 그의 집을 찾지 않았다. 그러나 손님들이 점차 줄어들고 동시에 그의 집안도 점점 쇠락해 나중엔 집안이 망해 버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임산동산이 명당자리 즉 지혈이었으며 팽이바위가 이곳을 지켜 주는 수호신격의 바위였는데, 그 바위를 깨니 지혈이 바뀌어 집안이 망한 것이라 한다.

또, 옛날에 임산동산 앞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이곳에 금베틀이 묻혀있다고 해서 해방이후 많은 사람들이 금베틀을 찾아 이곳에 왔었으나 아무도 찾지 못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9-2) 마심이 고개에 얽힌 전설

옛날부터 이곳은 장수 혈이라 해서 그 이름이 유명했었다. 그러나 일제시대에 이르러 민족정기를 말살하려는 목적으로 일본군이 이곳에 와서 혈을 끊기 위해 마심이 고개에 말뚝을 박았다고 한다. 그런데 말뚝을 박자마자 붉은 피가 솟구쳐 주위에 피가 낭자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사진 3: 10)

9-3) 박수문장에 얽힌 전설

박수문은 현재의 경찰서장식으로 이 마을을 지키는 사람으로 자손은 없으나 힘이 장사여서 도둑이나 강패 등을 혼내주는 등 선한 일을 많이 했다고 한다. 그리하여 이분을 기리기 위해 묘를 세워 박수문장이라고 했으나 지금은 사라져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한다.

9-4) 덕들(덕평1리)에 얽힌 전설

덕평리를 예전에는 덕들이라고 불리워졌는데, 덕들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이유는 옛날에 과거를 보러 가던 선비들이 지나가는 길이 마심이 고개였는데, 이곳에 주막이 있어서 선비들이 쉬어가곤 했다고 한다. 이 주막주인이 인심이 좋아 선비들이 감화하여 이곳의 이름을 덕들(德野)이라 지었다고 한다. (사진 3:36)

[덕평1리]

* 1998.4.10. 19:30-22:30. 덕평1리 이필성씨 댁에서, 장현덕 · 한윤경 · 정혜경 조사, 박광준 정리 제보자 이필성(78세, 남), 구순분(89세, 여)

* 마을회관에 아무도 안 계셔서 찾아다니다가 제보자를 만나게 되었다. 말씀하시길 좋아하셨으나 발음이 부정확하여 알아듣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조사자에게 매우 친절하게 대해 주셨다.

9-5) 공동묘지 전설

옛날에 어떤 사람이 담력을 시험하려고 공동묘지에 갔다. 그 시험은 묘지를 파서 시체에다가 말뚝을 박는 것이었다. 묘지에 도착해 땅을 파고 난 후 준비해간 말뚝을 시체에 대고 망치로 있는 힘을 다해서 내리쳤다. 그리고는 얼른 일어나려고 하는 그 때 누군가 그의 옷을 잡고 있는 것처럼 일어날 수가 없었다. 그는 너무나도 놀라서 그만 죽었다고 한다. 이는 그가 시체에 말뚝을 박으려 했는데 잘못 박아서 자기의 옷에다 말뚝을 박은 것인데 그 사람은 밑에서 무언가가 자기를 잡아 다니는 것이 시체인줄 알고 놀라서 죽었다고 한다.

9-6) 도깨비 전설

예부터 자작골 밑에서 사람이 죽으면 도깨비들이 나타난다고 했다. 또 공동묘지에는 밤만 되면 빨간 (파란) 불빛 등이 날아다녀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고 한다. 또한 도깨비들은 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흘려서 이리저리 끌고 다니다가 산으로 넘어 다니곤 했었다고 하는데 다음날 밭에 가서 보니

수수깅에 피 붙어 있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

[덕평 2리]

* 1998.4.11. 10:00-11:30. 임종덕씨 댁에서, 장현덕 · 정혜경 조사, 장현덕 정리, 제보자: 임종덕(67세, 남)

* 이 자료는 덕평2리 이장님 댁에서 연세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논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듣고 못자리 파종을 하고 있는 할아버지께 채록하였다. 채록도중 새참이 나와 맛있게 먹으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채록하여 정말 기분 좋은 일이었다.

9-7) 한봉 전설

한봉이라 함은 옛날에 봉화를 피웠던 곳으로 이곳에는 참외나 수박을 재배 하였는데, 사람들이 서리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원두막에 앉아 있으면 호랑이 불이 번번이 나타나 원두막을 지키던 사람들이 도망치곤 했다고 한다.

9-8) 웃물 전설

웃물은 웅달샘 · 약수물이라고 하며 예부터 이곳의 물맛이 하도 좋아서 임금님도 지나가다가 마셨다고 하는데, 약 100년 전쯤에 어떤 사람이 이곳이 명당이라는 소리를 듣고 그 샘 위에 묘를 쓴 후 샘의 물맛이 변하여 약수보다는 식수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말이 있다. 그물은 여름에는 손이 시릴 정도로 차고 겨울엔 따뜻하여 언 빨래를 녹일 정도로 따뜻한 명수로 알려져 있다. 또 이 샘에 얽힌 이야기로는 어떤 마을 사람이 꿈을 꾸면 꿈에 샘 주위에서 하얀 백발에 수염을 가진 노인이 나타나 길흉을 점쳐 주었다고 한다.

(10) 이평리

[이평 1리]

* 1998.4.11. 10:00-11:30 이평1리 옥수암에서, 장현덕 ·정혜경 조사, 장현덕 정리. 제보자: 청효 스님

* 이 자료는 옥수암의 유래를 조사하려고 옥수암을 찾아 갔다가 그곳에서 만난 청효 스님에게서 들은 이야기이다.

10-1) 여우박골 전설

옛날 이평리에 있는 여우박골에는 여우가 많이 살고 있었다. 그곳에 사는 여우들은 이평1리 이산 저산에서 불쑥불쑥 나타나 사람들을 놀래켰다. 또한 산 위에서 마을을 내려다보며 울기 일쑤여서 마을 사람들은 밤길 다니기를 꺼려할 정도였고, 마을에서 돼지 등을 잡아먹곤 해서 가축을 기르는데 어려움이 많았었다고 한다.

9-2) 옥수암 유래 (목탁봉 전설)

고려 때 밤마다 절도 없는 캄캄한 봉우리 위에서 목탁소리가 들려왔다. 그러기를 수개월, 어느 날 한 사람이 꿈을 꾸니, 그 꿈에 머리가 흰 백발의 노인이 나타나서 이르기를 “목탁 소리가 나는 저 봉우리에 곧 절이 생길 것이니라.” 하였다. 이 꿈을 꾸 그 사람이 스님이 되어 어느 산 중턱에 터를 잡고 나무를 가져다놓았는데 얼마 후 가서 보니 모두다 지금의 옥수암 자리로 옮겨져 있었다. 스님은 곧 그곳에 절을 지었고 지금의 옥수암은 그런 연유로 이곳에 위치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후로도 옥수암에서 나는 목탁소리가 계속 울려 퍼지고 있다고 한다. (사진 2:22)

[이평2리]

* 1998.3.28. 19:30-22:30, 이평2리 최성환씨 댁에서, 강승범 · 한윤경 조사, 강승범 · 박광준 정리 제보자: 최성환(74세, 남), 한상우(49세, 남)

* 이 자료는 지명을 조사하면서 최성환씨 댁에서 그곳에 찾아오신 분들에게

서 들은 이야기이다.

10-3) 쪽도리 바위

이평2리에는 쪽도리 바위가 있는데, 새색시가 혼례 때 머리에 쓰는 쪽도리 모양을 하고 있다. 옛날부터 그 바위를 쪽도리 바위라 불렀다. 이평리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지나다니며 관심 있게 살핀다. 이유는 쪽도리 바위 위에 돌이 놓여 있으면 마을 여인들이 바람이 난다해서 금기시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그 바위 위에 돌이 올려져 있으면, 마을 여자들이 바람이 날까봐 바로바로 치운다고 한다.

10-4) 미륵불 입상에 얽힌 이야기

이평리 길가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미륵불상 하나가 있는데 옛날부터 영험이 많았다고 한다. 가령, 자식을 못 가진 아녀자들은 여기에 와서 정성을 드렸고, 과거를 보러 가는 선비는 지나가다 일부러 들러서 소원을 빌었다. 옛날에 아이를 못 낳은 여자들이 미륵불의 귀나 코를 떼어다가 다려서 먹으면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속설이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현재 미륵불입상의 얼굴 형태만 있고 눈, 코, 입의 형태는 거의 없다. 그리고 6.25 동란 때 일이다. 박 모씨가 총을 미륵불의 머리 오른쪽 부분을 쏘고 이틀 동안 시름 시름 앓았다고 한다. (사진 2:3)

10-5) 삼승이 지명 전설

이평리에는 삼승이라는 지명이 있다.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마을 뒷산의 형국이 마치 중 셋이 나란히 서서 염불을 하며 내려오는 모습과 흡사하여 「삼승이」라 불리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일설과 세 명의 중이 살았기 때문에 삼승이라는 지명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또한 옛날 마을의 세 거성씨가 셋이었기 때문에 「삼성(三姓)」이라 했던 데서 유래 되었다고 한다. 「삼성」에서 「삼승이」로 변하여 현재 그렇게 전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신빙성이 있는 것은 스님과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바로 인근 산봉우리의 이름이 「목탁봉」이다.

(11) 해월리

[해월 2리]

* 1998.4.21. 08:00-09:00. 해월2리 이동철씨 가마터 밭에서, 흥순석 . 박정호 조사, 흥순석 정리. 제보자: 이동철(69세, 남)

* 제보자 이동철씨는 조사단이 숙식하는 집의 주인으로 여러 면에서 협조해주셨다. 밭에서 일하실 때 가까이 가서 주변의 지명과 유래를 물었더니, 기꺼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셨다. 구선복의 묘소가 있는 곳을 묻자, 알지 못한다고 하면서 조사자가 이천군지에 나오는 다음 이야기를 아시는가 물었더니, 그런 이야기가 있다고 하였다. 달래고개 전설은 차마 말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충 들려주신 것이다.

11-1) 구선복이 축조하려던 저수지와 균용대에 얽힌 이야기

해월리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구선복이 역적모의를 하다가 잡혀 죽었다 한다. 그의 묘도 봉의산(鳳儀山) 기슭에 있다고 하나, 확인할 길이 묘연하다. 그가 역적모의한다는 증빙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해월리 일대에 저수지를 만들어 균용대(鈞龍臺)로 이름하였다는 유래이다.

구선복은 조선 숙종 때 무신이다. 그가 세력이 떨쳤을 때 해월리 마을 입구에 있는 미륵산과 봉의산 기슭을 가로막아 커다란 저수지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렇게 되면, 해월리를 병풍 같이 둘러치고 있는 미륵산, 건지산, 수정산, 봉의산 안은 모두 물에 잠기게 되고, 쇠뿔같이 둥글게 뾰족히 우뚝 솟은 소학산(巢鶴山)은 물 가운데 섬을 이루게 된다. 상상만 해도 매우 아름다운 저수지가 될 수 있다. 지금도 멀리서 보면 뾰족한 봉우리만 물 위로높이 솟아 올라 신선의 낙시터가 됨직하다. 구선복은 이곳을 균용대(鈞龍臺)라 이름 짓고 용(龍)을 낚으려 했다고 한다.

이러한 원대한 계획을 세워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저수지 장방(場防)이 될 마을 어구 지형이 돌로 인하여 물이 많이 새는 것을 막을 길이 없어 실패하고 말았다.

구선복은 능성 구씨(陸城具氏)로 조상 대대로 혁혁한 가문의 후손이며, 병권(兵權)을 손에 쥔 바 있었고, 아들 또한 평안도 병마절도사였다. 이처럼 세

력이 대단하였기에 시기하는 무리들도 적지 않았다. 그를 시기하는 무리들은 구선복이 균용대를 축조하려는 것은 용을 낚는다. 즉 임금이 되겠다는 욕망이 내포된 것이라고 모함하였다. 이러한 이야기가 널리 구전되자 조정에서도 그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이를 빌미로 구선복을 문초하였다. 결국은 모함하는 무리들의 말이 받아들여져 역적으로 몰려 죽었다 한다.

구선복의 계획대로 해월리에 저수지가 축조되었으면 아마도 포천의 산정호수(山井湖水)보다도 아름다운 명소가 되었을 것이다. 『이천군지』에서는 이와 같은 전설을 구선복의 인물 항목에서 기록하면서 “명소가 없는 이천으로서는 매우 애석한 바 크다 아니할 수 없다. 현대 공법으로 한다면 어려울 것이 없을 것이고, 저수지 물을 마장(麻長) . 호법(戶法) . 대월(大月)을 잇는 이천평야에 관개한다면 관광자원 및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고 하였다.

11-2) 게너미(기너미) 지명에 얽힌 이야기

해월리의 소기명은 기네미이다. 게너미, 기너미로도 불리는데, 마을 이름으로는 매우 특이한 경우이다. 더욱이 해월리는 산간지역이라서 게(巒)와 연관되기 어렵다. 그런데도 마을 이름은 「게넘이」로 불려진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전설이 전한다. 하나는 산이 워낙 가파라서 고개를 넘으려면 기어 넘어야 하기 때문에 ‘기어 넘은 고개’라는 뜻에서 「기넘이」가 「기너미」로 쓰였다는 이야기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하다.

지금은 산간지역이지만 아주 오랜 옛날에는 바다였으며, 이 지역은 배를 정박하던 곳이라 한다. 이치리를 배터로 한 것도 그 때문이다. 바닷가이기에 자연 게가 많았고, 고개를 넘어 오천 쪽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한다.

한편, 옛날 오천리 앞으로 강이 흐르던 시절 무수한 게들이 무리를 지어 산을 넘은 일이 있고나서, 그 후부터 게넘이라 불리우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구전되고 있다. 옛날에는 이곳이 평지가 아닌 늪지대였다고 한다. 놀라운 것은 지금도 깊이 땅을 파보면 흙이 갯벌처럼 되어 있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로는 용인쪽 가창리(稼倉里)에서 이 지역을 살펴보면, 게가 넘어와 옆드린 형국이어서 「게넘이」로 불리게 된 것이라 한다.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산을 게처럼 넘어 온데서 유래된 지명이라는 설도 있다.

11-3 달래고개 전설

해월리에서 작촌리로 넘어가는 고개 가운데 달래고개가 있다. 달랑고개라고도 한다.

옛날에 가난하지만 우애가 깊었던 오누이가 이 고개를 넘어가게 되었다. 고개를 넘어가다가 갑자기 소낙비를 만났다. 오누이는 굴바위 속으로 들어가 비를 피하였다. 그러나 비를 이미 맞은 터라 옷이 다 젖었다. 옷이 품에 착 달라붙자 누이동생의 육체가 드러나 보였다. 몸을 떨며 추워하는 누이동생을 품에 안은 오라버니는 순간적으로 성충동을 느꼈다. 비에 젖은 누이동생의 체온을 직접 느끼고 드러난 몸매를 보고는 잠시 이성을 잃었던 것이다. 오라버니는 순진한 누이동생의 눈을 마주보는 순간, 아찔한 생각이 들었다. 잠시라도 부끄러운 생각을 했던 자신의 잘못을 용서할 수 없었다.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오라버니는 밖으로 달려나가 언덕 밑으로 몸을 던졌다. 누이동생은 그제서야 노총각의 오라버니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자신 때문에 장가도 들지 않고 뒷바라지 해준 오라버니에게 새삼 죄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오라버니의 시신을 얼싸 안은 누이동생은 “차라리 달래나 보지”하며 울부짖었다고 한다. 그 울부짖음이 얼마나 애통하였는지 온 산에 메아리쳤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주민들은 이 고개를 달래고개라 이름했다고 한다.

* 이 전설은 『달래강 전설』과 내용이 유사하다. 전국적으로 분포된 달래강전설이 해월리의 지명에 연관되어 형성된 자료일 수도 있다.

(12) 작촌리

[작촌리 1:1-5]

* 1998.28. 09:00-12:30 작촌리 효부비 앞에서, 홍순석 . 박정호조사, 홍순석 정리. 제보자: 이강로(79세, 남)

* 이 자료는 작촌리 조사를 위해 가던 중 제보자 이강로 할아버지를 길가에서 만나 채록한 것이다. 광주이씨 효부비 앞에서 시내에 나가는 차량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다. 바로 조사단이 찾아뵙고자 했던 분이어서 자세한 과정을 말씀드리고, 효부비 앞에 편히 앉아서 지명이나 부락제, 민요 등 많은 자료를 채록하였다.

12-1) 작별이의 지명유래

오천2리 장승백이를 지나 작촌리에 들어오는 초입에 널다리가 있다. 지금은 시멘트 구조의 작은 다리이지만, 옛날에는 널판으로 다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이다. 효양산의 금송양지를 찾으려 왔던 중국 사신이 이천의 지명만 듣고 효양산에까지 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 다리에서 작별 인사를 했다고 해서 동리 이름도 작별이가 되었던 것이다. 작촌리의 속지명은 바로 작별이다. (사진 3:42)

12-2) 나라모르기의 지명유래

작촌리에서 가장 위 쪽의 마을이 「나라모르기」이다. 한자명으로는 「國不地」인데, 매우 특이한 지명이다. 이곳은 사방이 첩첩이 산으로 둘러싸인 넓은 분지로서 누구든 한 번 들어가 숨으면 찾을 수가 없다고 한다.

영조4년(1728) 이인좌(李仁佐)의 난에 연루되어 처형된 이사성(李思晟)이 여기에 은신하여 전답을 개간하고 양병조련에 힘쓴 곳이라는 전설을 간직하고 있다. 나라에서 사람을 시켜 이 지역에 숨어 있는 이사성을 찾으려 하였지만 매번 허사였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모르는 곳이 있나” 하며 돌아갔다는 것이다. 이후로 외부사람들은 이곳을 “나라에서도 모르는 곳”으로 불렀고, 이것이 「나라모르기」로 정착된 것이다.

이사성은 이성임(李聖任)의 6세손으로 대월면 군량리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무술을 연마했는데 어려서부터 기골이 장대한 장사의 기품이 있었다고 한다.

마장면과 신둔면의 경계를 이루는 양각산 산중에는 마대(馬臺)라 부르는 바위가 있는데 이사성과 관련된 전설이 채집되고 있어 비록 그가 역모사건에 연루되어 처형되었다고는 해도 기이한 행적을 많이 남긴 빼어난 인물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12-3) 말발작 바위에 얽힌 이야기

옛날에 이사성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은 명마를 타고 다녔는데, 그 말이 매우 빨라서 겨룰 만한 대상이 없었다. 그의 말을 탐낸 어떤 사람이 이사성에게 내기를 걸었다. 이름난 궁수의 화살과 이사성의 명마 중 누가 더

빠른가 내기를 걸게 하였다. 양각산 중턱에까지 어느 쪽이 빨려 도착할 것인가 모두들 관심을 가졌다. 궁수는 힘을 다해 활을 당겼다. 이사성도 사력을 다해 질주하였다. 그런데, 이사성이 양각산의 목적지에 도달해 보니, 과녁에 이미 화살이 꽂혀 있었다. 이에 화가 난 이사성은 말의 목을 칼로 베어 죽였다. 이를 옆에서 놀라며 지켜본 사람은 이사성을 붙잡고 사정을 털어 놓았다. 과녁에 꽂혀진 화살은 양각산 쪽의 사람이 미리 쏘아 놓았던 것이다. 이러한 사정을 모르고 이사성은 자신의 명마를 무참히 죽이게 된 것이다. 그때 명마가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바위에 말발자국이 생겼을 정도였다. 얼마 전 까지도 그 발자국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 확장공사로 인해 없어졌다.

12-4) 광주이씨의 효행담

작촌리 마을 어구에는 광주이씨 효부비가 세워져 있다. 이 비석은 왜정 때 동네 유지들이 뜻을 모아 세운 것이다. 작촌리에 시집 온 광주 이씨는 일찍이 남편을 사별하였다. 자식도 두지 못한 채 사별하였는데도 재가하지 않고 시댁식구들을 봉양하였다. 시부모가 노쇠하여서 농사일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혼자 논밭에 나가 일해야 했다. 농토가 산 너머에 있기 때문에 새벽에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올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그런데 밤에 늦게 돌아올 때는 반드시 호랑이가 나타나 앞을 안내하였다. 시아버지가 병환이 심하여 눕게 되자 이씨는 더욱 정성스럽게 봉양하였다. 병이 심각하였을 때는 똥의 맛을 보아가며 병간호를 하였다. 이렇게 해서 시부모가 돌아가실 때까지 지성으로 모셨으며, 돌아가시고 나서는 제사를 정성스럽게 모셨다. 이 같은 효행을 잘 알고 있는 마을 사람들은 그 같은 미덕이야말로 영원히 기려야 한다면서 이 비석을 세운 것이다. (사진 2: 25)

12-5) 효양산 금송아지 이야기

이천 효양산에는 금송아지가 있다는 소문이 중국 천자에게까지 알려졌다. 중국 천자는 사람을 시켜 효양산의 금송아지를 찾아오라고 명하였다. 신념이 두터운 관리를 뽑아 그 일을 맡겼는데, 천자의 명을 받은 신하는 수 개월간 쉬지 않고 달려와 경기도 땅을 밟았다. 온갖 고생 끝에 용인읍을 지나 오천까지 왔다. 그날도 하루 종일 걸어서 오천까지 왔는데 해가 이미 저물어 어

두워졌다. 어두운 길을 헤매며 효양산을 찾아 가다가 지금의 작별이에서 한 노인을 만났다. 천자의 명을 받은 신하는 반가워서 그 노인을 맞이하여 융성하게 대접하였으며, 그들이 효양산을 찾는 이유도 자세하게 말해 주었다. 그랬더니 그 노인도 효양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라고 말하였다. 그 노인은 백발에 수염이 길게 내려져 있었으며, 손에는 짙은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중국 신하는 성급하게 효양산에 가는 길을 자세히 물었다. 그랬더니 노인이 말하기를, “이 길을 따라가면 오천리가 나오는데, 오천리를 지나서 억만리를 가시오. 또 거기서 한참 가면은 억억다리가 나오는데 그 다리를 건너서, 이천장을 지나고, 구만리 뜰을 지나서 길 하나 건너면 그 산이 효양산입니다.” 하였다.

그 이야기를 들은 중국 신하는 매우 당혹하였다. 중국에서 조선까지 온 것도 수개월이 걸렸는데, 여기서 다시 오천리, 억만리, 억억다리, 이천, 구만리를 가야한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게다가 노인이 지닌 쇠지팡이는 원래 석자가 넘었던 것이 짙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더 이상 찾아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중국 신하는 아예 포기하고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노인에게 거듭 확인하고는 작별하며 헤어졌다. 중국 신하와 노인이 서로 작별하고 헤어진 곳을 구천동 작별이라 했는데 지금은 작촌리로 이름이 바뀌었다.

전하는 말로는 중국 신하에게 길을 가르쳐 준 노인은 효양산의 산신령으로 금송아지를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모습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 지금도 효양산 쌍굴 중 한 개의 굴 속에 금송아지가 있다고 전한다.

(13) 문헌소재 마장면 관련 전설

마장면 관련 전설은 『이천군지』, 『한국의 전설』, 『전설지』 등 기존의 전설 자료집에도 여러 편 소개되어 있는데, 현장조사 결과 내용상 전혀 차이가 없었다. 문헌에 기록된 자료를 접하고 나서 구연하거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문헌자료에 맞추려는 경향이 있었다. 여기서는 문헌자료의 내용을 전재하고, 전이거나 변형된 자료는 채록한 자료를 지역별로 정리해 실었다.

13-1) 효자의 목숨을 구한 산돼지 -도드람산의 由來-

도드람산은 해발 234.1m로 산의 규모는 그리 크지 않으나 기암괴석의 봉우리들로 이어진 산세가 절경을 이룬 우리고장 제일의 명산이다. 이 산은 또 바위를 타고 넘는 등산로가 일품이어서 주말이면 많은 등산객들이 외지로부터 몰려드는 이름난 명승지이기도 하다. 도드람산의 산이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오고 있다.

옛날 이 산 근처마을에 홀어머니 한 분을 극진히 섬기는 효자가 살고 있었다. 그 어머니가 어느 날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되었다. 효자는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간호하며 유명하다는 의원을 수소문하여 청해 보기도 하고 좋다는 약도 이것저것 구해 다 드렸으나 어머니의 병환은 차도가 있기는커녕 점점 위독해만 갔다.

하루는 처음 보는 스님 하나가 이 집에 시주를 청하러 왔다가 슬픔에 잠긴 효자를 보고 그 까닭을 묻게 되었다. 효자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자, 스님은 도드람산에서만 자라는 석이(石耳)버섯을 따다가 어머니에게 드리면 틀림없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일러주는 것이었다.

효자가 스님이 일러 준대로 석이버섯을 따다가 어머니에게 드렸더니 과연 눈에 차도가 있었다. 그날도 효자는 석이버섯을 따기 위해 도드람산으로 올라갔다. 한 가닥의 밧줄에 몸을 묶고 깎아지른 절벽을 내려가 바위틈을 더듬으며 버섯을 뜯고 있는데, 어디선가 난데없는 산돼지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산돼지는 원래가 울 줄 모르는 짐승이기에 이상하게 생각한 효자가 절벽을 올라가 보니, 산돼지는 간 곳이 없고 효자의 몸을 매달았던 밧줄이 바위 모서리와 마찰로 거의 끊어져가고 있었다.

효자의 지극한 효심을 가상하게 여긴 도드람산의 신령님이 산돼지를 보내 효자의 목숨을 구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때부터 돛(돼지)울음산으로 불리우던 것이 세월이 지나면서 도드람으로 변했다고 하며, 한자로는 '저명산(猪鳴山)'이라 부르고 있다.

산돼지가 목숨을 구한 것은 효자가 아니라, 옛날 산 서쪽 기슭에 있었던 정악사(定岳寺)라는 절의 어느 고승(高僧)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도드람산이 처음 생겨나게 된 유래로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다.

아득한 옛날, 우리나라 전국의 이름난 명산(名山) 신령들이 모여 한양(漢陽)을 만드는데 마고(魔姑)할미에게는 삼각산(三角山)의 봉우리 하나를 만들라는 영을 내렸다. 마고 할머니는 백두.금강.설악.지리 등의 명산을 두루 찾아 순례하다가 공주 계룡산(鷄龍山)에서 마침 마음에 드는 봉우리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천신만고 끝에 산봉우리를 떼어 등에 지고 오던 마고할미가 이천에 이르러

잠시 짐을 벗어놓고 주막에 들어가 아픈 다리를 쉬는데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호기심 많은 구경꾼들이 모여들었다. 구경꾼 중에서 한 사람이 나서며 저 산봉우리를 대관절 어디로 가져가는 길 아냐고 물었다. 마고할미가 사실대로 대답해 주자, 그 사람이 말하기를,

“ 한양에는 이미 삼각산이 다 만들어졌다고 하니 그 산은 그냥 우리 고을에 두고 가는 것이 어떻겠소? ”하였다.

그 말을 들은 마고할미가 급히 한양으로 가보니 정말 삼각산을 비롯한 모든 산들이 제자리에 만들어지고, 다만 남쪽 한 방향만 틈었는데 그곳까지 막아버리고 나면 한강줄기가 막혀 한양 천지가 온통 물바다가 될 판이었다. 마고할미는 하는 수 없이 이천까지 끌고 온 산봉우리를 그 자리에 놓아 둔 채 가버리니, 그 봉우리가 오늘의 도드람산이라는 것이다.

도드람산 북쪽 기슭에 바위 한가운데 구멍이 뚫린 바위가 있다. 이 바위구멍은 마고할미가 도드람산을 옮겨올 때 끈을 꿰어 끌고 오던 자리라고 하며, 그 곁에는 사람의 형상을 한 바위도 있어 마고할미의 상이라고들 한다. 도드람산 중턱 바위틈에서 솟아 나오는 샘물도, 마고할미가 계룡산에서 산을 날라 올 때 목을 축이기 위해 가져온 샘물이라는 것인데, 지금은 약수로 소문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

이 재미나는 전설은 아마도 도드람산이 주변에 다른 산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뚝 솟아, 마치 금강산이나 설악산, 또는 계룡산의 봉우리 하나를 옮겨다 놓은 듯한 자태에서 생겨난 이야기일 것이다.

13-2) 도드람산과 근처 지세에 대한 이야기

이천의 명승지인 도드람산은 마장면(麻長面)에 위치하여 그 둘레엔 장암리(長岩里). 목리(木里) . 표교리(標橋里) . 이치리(梨峙里) 등 네 개의 마을이 있다.

도드람산을 산의 남쪽인 유산리(酉山里)와 안평리(安平里) 중간지점에서 보면,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펴고 하늘을 향하여 비상하려는 듯 위엄이 있고, 측면에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산정이 송곳 끝처럼 뾰족하기도 하여 다양한 얼굴을 갖고 있다.

도드람산에도 여덟 개 띠 명당자리가 있다고 하니, 그중 금계포란형(金鷄抱卵形)은 충원공(忠원公) 박명룡(朴命龍)장군의 묘자리로써 증(贈) 병조판서(兵曹判書)가 되고 그 후손 중에서 병수사(兵水使)가 많이 배출되었으며, 장군 대좌형(將軍對座形)은 임(任)씨가 묘를 썼다고 한다. 나머지 여섯 개 자리 중

두 개는 없어지고, 아직도 네 개의 명당자리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도드람산 산정에 가로 2m, 세로 3m 가량의 장방형을 한 명석바위가 있다. 이 바위를 중심으로 도드람산 주봉일대를 절의 중심인 대웅전(大雄殿)으로 가정하여 보면 명석바위는 부처를 안치한 보좌의 대가람(大伽藍)에 비유하여 풀이한, 세간에 전해오고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보좌가 위치한 명석바위에서 바라보는 설봉산(雪峰山)은 다른 명칭이 부학산(浮鶴山)이니 학이 날아 청천에 떠있는 듯하다고 하여 부학산이 되었다고 한다.

대웅전의 네 귀에 백학(白鶴)을 만들어 달아 상서로움을 나타내기도 하였으니, 설봉산 능선이 이어진 목리와 표교리 뒷산의 형태가 특히 도드람산을 향해 날아오르는 학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학의 목이 길게 능선으로 이어져 내려와서 지금의 표교 초등학교 자리가 도톰한 것이 학의 머리이고 머리에서 이어진 긴 언덕이 마을 앞을 흐르는 냇가에 이어졌으니, 학이 냇물에 부리를 담그고 먹이를 쪼는 형국이라고 했으나 지금은 이 형태가 많이 없어졌다.

도드람산 북서쪽으로 산줄기가 거의 끝나는 지점에 기둥처럼 나란히 마주 선 두 개의 바위가 있다. 이 바위의 이름을 '문암(門岩)'이라 부르며 근처의 마을이름이 역시 문암리(장암1리)이나, 대웅전으로 통하는 대문이 바로 여기다.

도드람 북쪽 마을은 장암2리로 다른 명칭이 '장승이'인데 장승(長僧) 즉, 주지승(住持僧)이 살 곳이라고 하여 장승이가 되었다는 것이다.

장승이 지팡이를 놓을 자리가 '고장동(高杖洞)' 즉 고жат말(신둔면 고척리)이다. 목탁을 놓을 자리는 '목동(木洞)'마을(목리)이고 바람을 놓을 자리는 '보름다리'이다. 보름다리(표교리)는 태고 적 큰 홍수로 세상이 물바다가 되었을 때, 마고할미가 설봉산과 도드람산 사이에 다리를 놓는데 보름이 걸려 다리를 놓았다고 하여 보름다리라 했다는 유래가 전해오고 있으나, 중들이 시주하여 얻은 전곡을 넣는 바랑 즉, 보람자루가 세월이 지나면서 보름다리로 변형되었다는 것이다.

절에 기거하는 중들이 모여 공부하고 수련하는 정학당(正學堂)이 있을 자리가 도드람산 북쪽 기슭에 있는 '정학골'이고, 변소를 놓을 자리가 '뒷골'인데 행정구역상으로는 모두 표교2리가 된다.

염라대왕을 위시한 10대왕을 봉안한 전각이 명부전(冥府殿)이니, 사람은 누구나 일단 죽으면 명부로 인도되어 생전에 쌓은 업보에 따른 심판을 받게 된다. 극락과 지옥의 갈림길, 곧 고(苦)와 락(樂)이 갈리는 명부전이 앓을 자리가 이치1리의 '고락동(苦樂洞)'이다.

멀리 남쪽으로 바라보이는 중 셋이 염불하는 형상의 동네가 '삼승이'이다. 즉, 삼승(三僧)을 의미한다고 하며 지금의 이평리(泥坪里)이다.

이와 같이 도드람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지역은 대가람과 같은 일종의 성역(聖域)이기 때문에, 멀리 임진왜란이나 가까이는 6.25동란과 같은 국가적인 환난을 당해서도 사람들이 죽거나 피를 흘리는 일이 없이 안전했다고 한다. 그런 이유에서 주민들이 더욱 신성시하는 산이 도드람산이라는 것이다.

예로부터 목동은 인물이 많이 나고 보름다리는 부자가 많이 난다고 했다. 목탁은 두드리면 소리가 나는 물건이므로 명망인사가 태어난다는 것이며, 바람은 전곡을 주워담는 물건이므로 부자를 만든다는 것인데 보름다리에서 부자가 되면 곧 그 지역을 떠나야 한다고 했으니 바람에 쌀이 차면 쏟아야 하는 탓에 그렇다는 이야기이다.

13-3) 양각산 마대(馬臺)와 이사성(李思晟)

양각산(羊角山)은 마장면 북쪽에 위치하여 신둔면과 광주군의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두 개의 봉우리가 양(羊)의 뿔을 연상한다고 하여 양각산이란 산 이름이 유래되었다. 양각산에는 치마대(駢馬臺)라 부르는 바위가 있으니, 이 바위는 조선 영조(英祖)때 평안병사(平安兵使) 이사성(李思晟)이 젊은 시절에 무술을 연마하던 곳이라 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사성의 6대조에 이성임(李聖任)이란 인물이 있으니, 선조(宣祖)때 문과에 급제하여 강원 . 경상관찰사를 지내고 임진왜란 때는 경상우도(慶尙右道) 순찰사(巡察使)로 활약했다. 일찍이 선조 대왕이 경회루에서 정시(庭試)를 베풀어 사예(射藝)를 겨룰 때, 활쏘기에 1등을 하여 특별히 임금으로부터 궁중에서 기르는 말 두 필을 하사 받아 중신들의 부러움을 산 일이 있으며, 필한(筆翰) . 문사(文辭) . 언어(言語) . 가성(歌聲) . 용모(容貌)가 모두 옥과 같이 뛰어났다고 하여 세상 사람들이 오옥선생(五玉先生)이라 칭송했다고 한다.

이성임은 대월면 군량리에서 태어나 자신의 호를 군량리 지역의 옛 명칭인 월량촌(月良村)에서 따다가 스스로 월촌(月村)이라 했다고 하며, 그의 묘소를 바로 치마대가 바라보이는 양각산 기슭에 썼다.

이사성은 어려서부터 기골이 장대하고 무예의 솜씨가 뛰어나, 타고난 장수의 기품이 있었다. 그가 청년시절에 웅지를 품고 치마대에서 무술연습에 몰두하던 중, 하루는 설봉산 산정으로 말을 몰았다.

이사성이 설봉산 산정에 서서 멀리 양각산 치마대를 바라보니 끊어오르는

호연지기를 누를 길이 없어, 문득 자신의 운세를 시험해 보기로 했다. 이사성은 활을 들어 멀리 치마대를 향해 활시위를 날리고는 바람처럼 말을 몰아 화살의 뒤를 쫓았다. 만약 화살보다 자신이 탄 말이 먼저 도착한다면, 평소 그가 마음속에 간직해온 응지가 실현될 정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사성이 전속력으로 말을 달려 치마대에 이르러 보니 화살이 이미 날아와 박혀있는 것이 눈에 띈다. 이사성은 그만 분을 참지 못하고 장검을 뽑아 화살보다 늦게 달린 말의 목을 후려쳤다. 그런데 그 때 머리 위에서 화살소리가 들리더니 그제서야 화살이 날아와 꽃히는 것이 아닌가. 이사성은 그가 지난날에 쏜 화살을 보고, 자신이 방금 전에 쏜 화살로 오인했던 것이다.

자신의 경솔한 판단으로 애마(愛馬)의 목을 벤 것을 그때 가서야 후회한 이사성은, 이 일로 인해 자신이 품은 뜻이 실현되지 못하리라는 것을 예감했다고 한다.

마침내, 영조4년(1728년) 이인좌(李仁佐)의 난이 일어나자 같은 소론파이면서 평안도 관찰사 겸 병마절도사로 병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사성도 반란에 가담했다고 하여 처형되고 말았다.

우리지방에는 이사성과 관련된 전설이나 지명이 적지 않으니, 이것은 그가 비록 역신(逆臣)으로 몰려 처형을 당했을망정 매우 비범한 인물이었음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다.

이사성이 태어나서 자란 곳이라는 군량리 '은평나무골'에는 이사성의 집터라고 전해오는 빈터가 있고, 동북간으로 수십 보 떨어진 논가에는 그가 어릴 때 마셨다는 우물이 있다. 또 군량3리에 있는 '이만이재'는 이사성이 군사 2만 명을 거느리고 무술연습을 한 고개라는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다. 이사성은 술사(術事)에도 능해 싸리비로 만든 말을 타고 다니며 기마술을 익혔다고 한다. 군량3리 양화천(楊花川) 변에 '말바위'라 부르는 커다랗고 둥근 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이사성이 이만이재에서 이곳을 향해 활을 쏘고 말을 달려, 화살보다 늦게 도착한 말을 목 벤 바위라고 하여 치마대와 비슷한 유형의 전설이 깃들여 있다.

또 마장변 작촌리에는 '나라모르기'라는 골짜기가 있으니, 사방이 높은 산줄기들로 둥글게 둘러쌓여 나라에서도 알지 못하는 궁벽한 땅이라는 뜻이다. 이곳에도 일찍이 이사성이 은거하며, 군사들을 모아 전답을 개간하고 양병조련에 힘쓴 곳이라는 유래를 간직하고 있다.

<참고자료 -利川大觀>